

울산울주지방의 유행민요

成 範 重

[자료에 대한 설명]

1.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1982년부터 1988년에 걸쳐 조사한 울산울주지역 구비문학 자료 중 민요자료의 일부이다. 이때 조사한 민요자료는 이미 『울산울주지방 민요자료집』(울산대학교출판부, 1990)으로 간행되어 학계에 보고된 바 있으나, 여기서 소개하는 유행민요 자료는 그때 지면상의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것들이다. 정리방법은 그 책의 체제를 따랐다.

2. 여기에서 소개하는 민요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유행민요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울주지방의 지역적 특색과 관련된 내용이나 기왕의 민요자료집들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민요라고 치부하여 무시하여 버리기에 아까운 자료들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앞서 보고된 『울산울주지방 민요자료집』을 보완하는 동시에 울산울주지방 민요자료를 완결짓는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이 민요자료의 정리 방법은 앞서 간행한 민요자료집의 체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자료의 조사과정, 조사지역 및 제보자에 대한 기본정보는 이미 출간된 민요자료집을 참조할 것이고, 자료의 독해방법 또한 민요자료집의 일러두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만 그 자료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 지역적 분포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호(약호)에 대한 도표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 호	지 역	기 호	지 역
A	울산시 전지역	H	울주(울산)군 언양면
B	울주(울산)군 강동면	I	" 삼남면
C	" 농소면	J	" 응촌면
D	" 범서면	K	" 청량면
E	" 두동면	L	" 온산면
F	" 두서면	M	" 온양면
G	" 상북면	N	" 서생면

4. 한자는 필요한 경우 () 속에 넣었으며, 너무 심한 방언으로 인해 이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준어를 [] 속에 병기하였다.

개성난봉가

분포지역 : AL

A12 송정동 지당 심호구(남 78)

L66 방도리 김주생(남 74)

박연폭포(朴淵瀑布) 흘러가는 물이
 범사정(泛槎亭)으로 역시 곰돌아(곰돌아) 들구나
 에헤야 얼사쫑구 쥐구쫑다
 허리끈만 띠어라 내사랑아

A12 (표본 외에) 오는새 가는새 저덤풀(덤불) 밑에 자고가고/오는사람 가는사
 람 내품속에 놀구나/에헤야 얼사쫑구 쫑구쫑다/허리끈만 띠어라 사이다
 맥주로 놀더라.//니가 잘나 일색(一色)이 되었나/내눈이 어두와 너와 환
 장이로다/바람 광풍(狂風)아 불지마라/송풍낙엽(松風落葉)이 다 떨어지노

라/에헤이 열사좃구 좃구 좋다/허리끈만 띠어라 사이다 맥주로 놀꺼나.
 L66 박연폭포 흘러 나린 물은/범사정으로 연시 감돌아 드노라/에헤야 어릴릴
 바 두둥둥 사랑이로다/날(日)가고 달(月)가고 임은 마저가고/요세상 백년을
 누구를 믿고 사나/에헤야 어릴릴 바 두둥둥 내사랑아.

경복궁타령

분포지역 : A

A12 중구 송정동 지당 심호구(남 78)

조선(朝鮮)에 십삼도(十三道) 제일가는 나무
 경복궁(景福宮) 대들보에 다 나간다
 에헤야 어릴릴 늘어지고 방아로다

A12 (표본 외에) 간다 못간다 언매나(얼마나) 울었나/정기정(停車場) 마당이
 한강수(漢江水) 났네/에헤야 어릴릴 늘어지고 방아로다.//일락서산(日落
 西山)에 해는 떨어지고/월출동령(月出東嶺)에 저달이 밝아온다/에헤야 어
 린릴 늘어지고 방아로다.//바람 광풍(狂風)아 부지를 마라/간밤에 핀 꽃
 이 낙화가 된다/에헤야 어릴릴 늘어지고 방아로다.//니가 잘나서 일색(一
 色)이 되나/내눈이 어둡와서 환장이로다/에헤야 어릴릴 늘어지고 방아로
 다.

노랫가락

분포지역 : ABCDHJKLMN

A18 황암동 황암 진인식(남 71).

B4 정자리 최입조(남 79).

C4 천곡리 박하수(남 69). C27 중산리 약수 이차귀(여 71). C28 이화 김 모생(여 57). C31 약수 국동택(여 64). C32 중산리 약수 광건출(여 62).

D14 중리 유말출(여 66). D30 천상리 천상 박성용(남 73).

H6 남부리 이창현(남 65). H14 직동리 신흥 강모숙(여 67). H35 다개리 흥 문표(남 63). H37 다개리 김숙이(여 58)

J38 대북리 대북 박위순(여 67). J42 대북리 오복 박귀순(여 67). J43 대 북리 오복 김상내(여 64). J51 석천리 석천 이복대(남 68).

K32 중리 차진성(남 71).

L5 강양리 하회 한정숙(여 53).

M23 동상리 상서 엄우영(남 72). M24 동상리 상서 엄태주(남 73). M26 동상리 상서 민은식(남 65). M33 운화리 하대 박선애(여 38).

N7 서생리 성내 박상금(여 67). N8 서생리 성내 신봉주(여 69). N10 서생 리 성내 이동선(여 61). N11 서생리 성내 홍종철(여 57). N13 서생리 성내 조말분(여 57). N15 서생리 성내 이정순(여 50). N16 서생리 성내 이주영(남 71). N17 서생리 성내 송영근(남 62). N50 신암리 김순난(여 69).

어화로 달이나 밝아 학성공원(鶴城公園)¹⁾에 두견(杜鵑)이 울고
기선(汽船)이가 물을 실코 이수삼산(二水三山)을 들어가니
백련사(白蓮寺)²⁾ 새벽 종소리 학성공원에 두견이 운다
말은 가자 구이(굽이)를 치고 입은 날잡고 낙로(落淚)를 하네
석양은 지(재)를 넘고 나의 갈길이 천리(千里)로다
임아 임아 날 잡지마라 나의 갈길이 천리로다

1) 울산시 학성동(鶴城洞)에 있는 공원.

2) 울산군 동대산(東大山) 서쪽에 있는 암자 백련암(白蓮庵)을 가리킴. 백련암은 울산 팔경(蔚山八景)의 하나임.

B4 놀자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화무는 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나니/일생 일장춘몽(一場春夢)인데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새끼(繩)야 백(百)발은 공출(供出)이 나가는데/인간 백발(白髮)은 쓸 곳이 없네.

C4 헤헤이 꿈아 무정한 꿈아 오시난 님을 왜 보냈나/오신님 품 아지 말고 잠든 나를 깨워두자/일후(日後)에 또 다시 오거던 잠던 나를 깨와두가. C27 울도 담도나 없느냐 집이/어떠한 처녀가 저리나 곱기 삼켰던가/뉘아내자 뉘아내자 잘 뉘아내면은 내 보배요/못뉘아 내면은 내 상사(相思)로다.//총각아 유다른 총각아 말많은 집안에 너 왜왔노/그 처자(處子) 잔소리 많다 숫들이 좋아 낫 갈러왔다.//새끼야 백(百)발은 쓸곳이 있건만/사람의 백발(白髮)은 쓸곳이 없구나. C28 황천은 망글어져도 등치만은 남아있고/우리 청춘도 늙었건마는 마음만은 남아있네.//가는날에 우는 새는 춘광춘색(春光春色)을 자랑하고/송백수(松柏樹) 푸른가지 높다랗게나 근네(그네)메고/녹의홍상(綠衣紅裳) 미인들은 오락가락 마이(鬘)이 난다/우루야 벗넘은 어덜가고 이시절로 몰라주나/얼씨구좋다 정말로좋아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C31 간밤에 꿈 좋더니 님으그게서(님에게서) 편지가 왔네/편지사 왔건만은 님은 어찌사 못오시나/동자(童子)야 먹 같어라 님으그게다 답을 하자.//에히여 우리가 살더라 몇백년 사노/항구만 벗어 한오백년 산다/세월아 네월아 오고 가지마라/알뜰한 요내청춘 다 넘어가네. C32 일본동경(日本東京) 가신 낭군 돈벌면 오실랑가/공동묘지 가신 낭군 제사(祭祀)철에 오실랑가/산이높다 못오시나 ○○연락 ○○됐나/편지 배달이 발병났다.

D4 배가고파 지은밥은 미(米)도 많고 돌도 많다/미 많고 돌 많은 건 입이 없는 탓이로다/우리도 언제 유정(有情)님 만나/미없고 돌없는 밥을 먹어보꼬.

D30 꿈아 무정한 이 꿈아 오신 낭군을 보내나/오신 님으는 보내지 말고 잠든 이몸만 깨워주지/언지(언제)나 잠 드러여 오신 낭군을 또 만들꼬.

H6 주천당(酒泉堂) 세모진(세모시) 남게 늘어진 가지다 그네 메고/입이 뛰면은 내가 밀고 내가 뛰면은 입이 밀어/저 입아 줄 밀지 마라 줄 떨어지면 입 떨어진다. H14 주천당 세모진 남게 추천(鞦韆)을 땃어/입이 타면 내가 나 밀고 내가 타면은 입이 민다/저 입아 줄 미지(밀지) 마라 줄 떨어지면은

정 떨어진다. H35 에에- 탁주(濁酒)를 배를 모아 청주(淸酒)강에 다 띄워
 놓고/심심옥수(纖纖玉手) 돛대를 세아(세워) 소주(燒酒)바람에 일렁일렁/동
 자야 배 돌리(돌려)세와라 안주섬에다 달맞이 가자/종구나. H37 대천(大
 川)바다 한가운데 뿌리없으나 낭그(나무)를 승가/가지는 삼백잎 피어 꽃은
 피어서 만발(滿發)이 되고/꽃피자 임이 오시자 저달이 등실/명사십유(明沙
 十里) 해동화(海棠花)야 꽃진다고 설워마라/명년삼월(明年三月)이 다치오며
 꽃도피고 잎도핀다/꽃은피어 머리에다 꽃고 잎으는 훑어여 입에 물고/산에
 올라 들구경하니 질(길)가던 행인이 질 몬간데이.//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고요/날 바리고 가는 임은 가고접어 가느냐/산차지 물차지는 총독
 부(總督府)차진데/팔방(팔방)에 새각씨는 내 색시로다.//주천당 세모시 낭
 게 짝지가지나 추천(鞭鞭)을 매자/임이타면 내가서 밀고 내가 타면은 입이
 민다/임아임아 줄 미지마라 줄 떨어지면은 정 떨어진다.//달아 두렷한 달
 아 입우(입의) 서창(紗窓)에 비친달아/저달이 낮(낮)인중 알면 저리 밝기가
 만무(萬無)하지.//황해도(黃海道)라 고월산(九月山)에 주추(지치)야 캐는 저
 큰아가/너의집은 어드루 가고 해가져 여태 몬가는냥/저의 집으로 가실라면
 계룡산(鷄龍山) 계룡산 밑에/초가 삼칸(草家三間)이 저집이요/쉬가 가시거
 든 쉬가시고 노다가 가시거든 노다가가소/말씀이사 좋쿠마는 백년(百年)의
 부배(夫婦)로 맺읍시다/말씀이사 좋쿠마는 백년의 부배가 잘되겠소.//연꽃
 제 연못안에 연밥따는 저 큰아가/연밥은 차차로 따고 여내(이내) 품안에 잠
 들어라/잠들기사 어일업지마는(어렵지 않지만) 연밥따기가 늦어온데이.//머
 리야 좋고 실한 처녀 올뽕낭게 앉어온데이/올뽕줄뽕 내 따주마 백년의 언
 약(百年言約)을 나강하자/말씀이사 좋건마는 백년언약 잘되겠소/얼씨구 좋
 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사람 좋다 사람 좋다 우리야 병모(聘
 母)님이 사람 좋다/첫날저녁에는 처녀(處女)를 주고 이튿날 저녁(저녁)에 각
 씨 준데이/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니와 나와 만날
 적에 열두포장 채알(謎日)밑에/꽃핀 본 돌리치고 암달(암)장달 마주놓고/맺
 뉘술잎 마주꽃고 니 술 한잔 내가 붓고/내 술 한잔을 니가 붓고 북방재배
 (北向再拜)로 하골적에/청실홍실 인연을 맺어 백년사자교 만난 부배(夫婦)/

니와 나와 못고기가 되면 공양곡(供養穀) 쌀밥에 눈물나고/니와 나와 갈기(갈고지)가 되면 거묵나물 갱죽(羹粥)에도 이삭 난데이.//항구(港口)엘랑 떠난배는 파도물질(질)판 남아있고/기차떠난 역전안에 껌등연개(겜은연기)판 남아있고/우루(우리)임이 떠난뒤는 근심만 걱정만 남아있다.//산천초목 맺힌것은 천지가 알고요/이내심정 막힌것은 적막강산(寂寞江山)이로다.

J38 술은 술술 잘 넘어가고 찬물아 냉수는 입안에 뱅뱅돈다. J42 꽃이 피어도 님의생각/강짜이더니 한숨이더니 강물만 보아도 님의 생각/구시월 시단풍에 낙엽만 떨어져도 님의 생각/동지설달 설한풍(雪寒風)에 백설만 날려도 님의 생각/두통 비개(베개)는 혼차(혼자) 다 비고 ○○○○ ○○○ 홀로자나/밭치에야 마디를 밀치놓고/유자야 이불을 혼차 덮고 두통 비개는 혼차 비고/금종지에 기름을 부어 늦종지다 불을 케니/그대 지름 타는 모양 요내야 간장이 다타구나.//파란 하늘에는 달이 하나요 시악시 가슴에는 임이 하날세/그 임이 누구나고 그 임이 누구나고/그 임이 누구나고. J43 간밤에 꿈 좋더니 임의 글이 편지왔지/편지는 왔건마는 임은 어찌서 왜몬오노/동자(童子)야 떡갈어라 임의그게서 글이나 적어.//나비야 청산을 가자 호랑나비야 너도 가자/가다가 저물거등 꽃에 붙어서 차고가자/꽃이가 반대(薄待)를 하면 앞에 붙어서 차고가자. J51 주천당(酒泉堂) 시모진(세모시) 낭개 높드랑개 주천(鞭鞭)을 뛰네/임이 뛰면 내가나 밀고 내가 뛰면 임이 끌어/임아임아 줄 미지마라 줄 떨어지면은 정 떨어진다.

K32 태산(泰山)은 옛산이건만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주야장천(晝夜長川) 흐르는 물이 옛물이라고 할수있소/인생도 저 불과같이 한번가면은 못돌아온다/태산이 높다해도 올라서면은 발밑이요/한강물이 넓고깊어도 배만 타면은 내밑이라/하늘이 높고높아도 삼산오경에 이실(이슬)을 주고/북만주(北滿洲)가 멀다하여도 급행열차가 왕래를 하고/황천길이 얼마나 멀진데 한번가면은 못오시나.

L5 이산저산 양산(兩山)산에 슬피우는 노구새야/니 한바리(마리) 울음속에 일천간창(一寸肝腸)이 다눙는다.

M23 니 잘났나 내 잘났나 그누가 잘났노/구비백통 잊은 기와 지 잘났지.

M24 차랍봉(天王峯) 남글비어 조그만하기 배를 모아/함수굴에 띄어나놓고

님도타고 나도타고/사공아 배둘러라 서생(西生)진하(鎭下)³⁾로 해수욕(海水浴)가자.//송기끓어 짝지를 쪼고 꽃은 끊어서 머리에 꽃고/읽은뜬어 채
 증(吹奏)을 불고 뒷동산천에 올라서니/운무(雲霧)는 자옥한데 내갈길을 헤
 매이겠소.//앞동산 봄춘(春)자요 뒷동산천은 푸를청(靑)자/가지가지 꽃화
 (花)자요 굽이굽이 내천(川)자라/내천(川)자 골을 피더니 마음심(心)자가
 분명하요.//남기라도 고목이되면 오던세도 아니오고/꽃이라도 낙화가지면
 오던나비도 아니온다. M26 백두산석(白頭山石)은 마도진(磨刀盡)이요/두
 만강수(豆滿江水)는 음마무(飲馬無)라/남아이십(男兒二十) 미평국(未平
 國)하니 후세수칭(後世誰稱) 대장부(大丈夫)고. M33 이구십팔(二九十八)
 열여덟에 첫장가를 갈렀더니/앞집에 가서 궁합(宮合)을 봐도 궁합에도 못
 갈 장가/뒷집에 가서 책력(冊曆)을 봐도 책력에도 못갈 장가/못갈 장가를
 가고보니 불상불만이 생겼구나/부구(訃告)로다 부구로다 이정승 딸의 부구
 로다/그 부구를 저버리고 첫째 봉오리(봉우리)를 돌아가니/첫째 봉오리를
 돌아가니 새짐승이 지저귀고/두째 봉오리를 돌아가니 까막까치가 진동하
 네/올라가요 올라가요 산마루를 올라가요/올라가서 내다보니 저건네 저집
 이 내 처가(妻家)라/첫째대문을 열고보니 자인(丈人)장모가 통곡하고/둘째
 대문을 열고보니 처남처제가 울고있네/셋째대문을 열고보니 (잠시 끊어
 짐) /새별같은 저요강은 발채(발치)에다 밀쳐놓고/내가 사준 금반지 금시
 계 책상위에서 돌아가고/둘이 깔자는 저 요는 혼자 깔고 잠들었네/둘이
 덮자는 저 이불은 혼자 덮고서 잠들었네/둘이 비자고(베자고) 듯동비게(베
 게) 혼자 비고서 잠들었네/ (잠시 쉽) 나 줄라꼬 해놓은 떡은 상도꾼(상두
 꾀, 나중에 말로 ‘아이들’ 이라고 바로 잠음)이나 많이주소/나 줄라꼬 해
 준 떡은 아이들이나 많이주소/나 줄라꼬 했던 술은 상도꾼이나 많이주소/
 가요가요 나는가요 왔던길을 다시가요.

N7 세상이 비감(悲感)도 허여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가사장삼(袈裟長衫)
 떨쳐입고 명산대천(名山大剎)을 찾아 가여/염불(念佛)소리와 종소리와 석가
 여래(釋迦如來)를 믿고살까.//천하천지(天下天地) 약도 많고 드는 비수(匕

3) 울산군 서생면(西生面) 진하리(鎭下里). 해수욕장이 있음.

首) 많건마는/님잇을 약이 없고 정을 꿇을 칼이 없어/아마도 못잇고 우릿
 남인가.//대천바다 한가운데 뿌리없는 남기나서/가지는 열두가지요 앞은
 피어 삼백여순/그 남게 열매가 열려 그 열매 이름은 일월(日月)이라. N8
 임이 죽어서 님이 되어 추망[추마] 끝에 집을 지어/임인지 알았시면 날면
 보고 들면 봤지. N10 아하 열씨구나 좋네 절씨구 아 아니놀고 무엇하리/나
 부[나비]야 범나부야 담장 너를 넘지마라/몸썰[몸쓸]년의 왕거무[왕거미]가
 줄을치고 기다리네/열씨구나 좋다 절씨구 좋다 아니놀고 무엇하리. N11 주
 천당(酒泉堂) 세모시 남게 높다하야도 끈대를 걸어/임이 타면 내가나 밀고
 내가 타면은 임이 밀어/저 님아 줄 밀어밀어 줄 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N13 헤-임은 가고 봄은 오니 꽃만 피어도 임의 생각/창천(蒼天) 일월(日
 月)이 한소쇄(蕭灑)하니 강물만 푸르도 임의 생각/구시월(九十月) 시단풍
 에 낙엽만 떨어저도 임의 생각/동지설달 서남풍(雪寒風)에 백설만 날려도
 임의 생각/앉아 생각 늙어 생각 생각끝에 다 늙었네/열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
 다 아니노지를 못하리라.//헤- 진국명천(鎭國名山) 만장봉(萬丈峯)에/바람
 이 분들 시러질가/송죽(松竹)같이 굳은 내마음 매맞는들 허락할가/아무리
 야 여자알망정 절기[절기]조차 없을소냐/열씨구나 좋네 지화자자 좋다 아니놀
 지를 못하리라/아니놀고 무엇하리. N15 아니 아니나 놀진 못하리라/황해
 도(黃海道) 봉산(鳳山) 구월산(九月山) 밑에 주추[지추]개는 저 처녀야/너
 의집은 어디다두고 해가져도 아니가노/우리집은 있건만은 황해도 봉산 구
 월산밑에 초가삼칸(草家三間)이 내집이요/이리이리 이리리리리리 아니나놀
 진 못하리라/너헤 집은 계와[기와]라도 숨만 텅텅 맥히노라/우리집은 초가
 (草家)라도 은전가에다 구들놓고/지와같이 대지하야 사모에 핑경(夔磬)달아
 핑경소리만 요란하네/열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자가 좋네 아니나 놀진 못
 하리라.//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올도담도 없는 집
 에 멧짓(明紬)베짜는 저 처녀야/그야 멧짓베 공비단(貢緋緞) 멧지 철걱철걱도
 잘도 짠다/손을 치니 님[남]이나 알고 눈짓을 하니 짓 모른다/열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아니놀고서 무엇하리/아니노지는 못하리라.//임은 가도 봄
 은 온들 꽃만 패여도 임의 생각/항상 일월(日月)이 한소쇄(蕭灑)하야 강물
 만 흘러도 임의 생각/늙어야 생각 앉았나 생각 생각끝에 영화로다.//헤-

말은 가자고 곱이를 트고 님은 날 잡고 슬피우네/임아임아 날 잡지마라 내가 가면은 아주가나/아주간들 잊을소나 내가 간들 다시오마.//저개(저기) 가는 저 구름아 눈들었나 비들었나/눈도 비도 아니나 들고 소리야 맹청(名唱) 다들었네/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아니놀고서 무엇하리.//혜- 달아 두렷한 달아 입에 봉창(封窓)에 비친달아/저 달이 나 심정 알면 저리 밝기도 만무(萬無)하다/배고파 지은밥은 미(미)도 많고 돌도 많다/미 많고 돌 많은 것은 입이없는 안팍(안)이로다/언제나 같은님 만나 미들없는 밥 먹으나볼꼬.//혜- 주천당(酒泉堂) 세모진(세모시) 남계 당사(唐紗)실 모로걸어놓고/입이 타면 내가나 밀고 입이 타면은 내가 민다/임아임아 줄 미지마라 줄 떨어지면은 정 떨어진다. N16 예- 노세 젊어서 노자 늙어지면 못노난다/화무 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저달도 차면은 기우나니/인생 일장춘몽(一場春夢)이온데 아니나놀고 무엇하리요/황성낙일(荒城落日)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 기럭아/영웅호걸(英雄豪傑)입 진달(進達)하니 북방의 소식을 전해주지.//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야 수이감을 자랑마라/일도창해(一到滄海)를 하면 다시오기가 어렵노라/명월(明月)이 만공산(滿空山)하니 다시오기는 어렵네요. N17 백두산석 마도진(白頭山石磨刀盡)이요/두만강수(豆滿江水)는 음마무(飲馬無)라/남아이십미평국(男兒二十未平國)하니/수세수칭(後世誰稱)은 대장부(大丈夫)라. N50 들깨참깨 노는데가 아주까리 못노는가/우리가 젊어늘어 아니늘지는 못하리라.

닐니리

분포지역 : D

D29 천상리 천상 진동식(남 73)

닐니리야 닐니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니리리 닐니리야 어제청춘 오늘백발 가는세월을 어찌알아

닐니리리 닐니리야 닐니리야 닐니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D29 (표본 외에) 청사초롱(靑紗燭籠) 불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닐니리리 닐니리야 닐니리야 닐니리야/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도라지타령

분포지역 : AH

A12 송정동 지당 심호구(남 78).

H34 다개리 새마을 김복룡(남 55).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深深山川)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 광색만 내노라
에헤 에헤야 어여라 난다
디여라 사랑살이로다

A12 (표본 외에)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
바구니 광색만 내노라/에헤 에헤야 어여라 난다/띠여라 허송세월(虛送歲月)
만 다보낸다.//임이나 오실때 되었는데 원수년 댓바람/넙 가신곳을 알
어야만 나막신 우산을 걸치리/에헤 에헤야 예여라 난다/띠여라 사랑도 나
를 이어라.//백벽동자를 하더라면 나같이 사고만무치(四顧無親)리오/물을
이로(이리) 가라니 엉단이(엉덩이) 춤마 추노라/에헤 에헤야 어여라 난다/
디여라 허송세월만 보내네.

H34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도라지/한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
단석만 되노라/에헤에에요 에헤에요 에헤에요 예여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살곰 다늑인다.

밀양아리랑

분포지역 : A

A12 송정동 지당 심호구(남 78). A44 방어동 삼진 정두학(여 65).

세월네월아 봄아 한철아 오고가지 마소
 아깁운 이내 청춘 다 늙어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A12 (표본 외에) 바람 광풍(狂風)아 바람 광풍아 부지를 마라/송풍낙엽(松風落葉) 다 떨어진다/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소/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우연히 든 정은 뼈골(骨)새에 박혀/박연폭포(朴淵瀑布)를 늘 잊을소냐/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누가 잘나/이내 줌치(쥬머니) 은전지화(銀錢紙貨) 지잘났네/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미국(美國) 시끼 양복박자 개화장(開化杖) 짚고는/호박잎이 난실난들 날 친인다(속인다)/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아리랑 고개를 넘기주소.//날 줌보소 날 줌보소 날 줌보소/동지선달 꽃본듯이 날 줌보소/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아리랑 고개로 넘기주소.
 A44 아롱놓고 씨롱놓고 달(달)잡아 놓고/소괴기(고기) 국밥에 밥말아 놓고/정든님 오시더록 밤새더록 기다리도/첩우야 방에 씨러져서 아니오네요/아롱아리랑 씨리씨리랑 아라리가 났네/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만 넘기주소.//부산(釜山) 산판(山坂)서 하얀연락 노란물독 감동연기 모그락폭폭 나는데/오륙도(五六島)⁴⁾ 먼동이 썩들었으니 시모노세키로다/아롱아롱아 씨롱씨롱아 아라리가 났네/아리랑 고개고개도 날만 넘기주소.

4) 부산에 있는 섬.

뱃노래

분포지역: AIL

A19 황암동 황암 조용산(남 75).

130 가천리 강당 김성준(남 59).

L7 강양리 강희 정달김(여 66). L65 방도리 방도 최형출(남 71).

에야누 야누야 에야누 야누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니가 죽고 내가 살면 무어를 하느냐
 한강수(漢江水) 푸른 물에 단들이 죽잔다
 에야누 야누야 에야누 야누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130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부딪치는 파도소리
 에 잠을 깨우니/들려오는 종소리 처량도 하구나/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
 노/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놀무리 들었네 놀무리 들었네/이산저산 도
 라지 꽃에도 놀무리 들었네/어야노 야노야 어야노 야노/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작년같은 흉년에도 이밥을 먹었는데/금년걸이 색시풍년에 장가
 를 못가노/에야로 야노야 에야노 야노/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일락서
 산 해저문 날에 홀로만 남았이니/부딪치는 저소리 서글퍼구나/어야노 야
 노야 어야노 야노/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바람아 강풍(強風)아 맘대로
 만 불어라/삿대잡은 이 사공(沙工)도 갈곳은 있다요/에야노 야노야 에야
 노 야노/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창해만리(滄海萬里)에 먼 바다에/외로
 운 등불만 깜빡거리네/에야노 야노야 어야노 야노/어기여차 뱃놀이 가
 그노라.//바람앞에 촛불은 꺼지건말건/우리 둘이 뜻만은 변치를 막시다/어
 야노 야노야 어야노 야노/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만경창파(萬頃蒼波)
 에 배 띄어 놓고요/갈매기를 벗을 삼아서 타고만 갑니다/어야노 야노야 어
 야노 야노/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L7 야로 야로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어기야 동산(西山)에 해 떨어지고요/얼
 층아 동편에 저 달이 뺏구나/에야로 야로야 에야로 야로/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일락서산(日落西山)에 해 떨어졌구나/얼층아 동편에 저 달이 뺏
 구나/에야로 야로야 에야로 야로/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작년걸은 승년
 (凶年)에도 이밥을 묵았는데/올같은 처자풍년(處子豐年)에 장가를 못가노/
 에야로 야로야아 에야로 야로/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어시름 달밤에 개
 고리 우는소리/시집못간 저 처녀가 지랄이 났구나/에야로 야로야아 에야로
 야로/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L65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야/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석양살 배는 막걸리 실고요/오륙도(五六島)
 수풀로 임찾아 가노라/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야/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그가 날만큼 생각을 한다면/가시발이 천리(千里)라도 맨
 발로 따라가요/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야/에야노 야노 얼씨구니 좋다
 뱃놀이 가잔다.

베틀노래

분포지역 : DIJ

D30 천상리 천상 박성웅(남 73).

16 교동리 작하 양임수(여 62). 18 교동리 작하 정기출(여 66).

J35 대북리 대북 박양금(여 57).

베틀농자 베틀을 농자

옥난강(玉欄干)에다 베틀을 농자

에헤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는 베틀에 수심(愁心)만 지노라

D30 (표본 외에)이베 짜서 누구를 주나/가진(갖은) 치성(致誠)에 눈물이로다/

에헤헤야 베짜는 아가씨/사랑노래는 베틀에 수심만 지노라.//울창(들창)밖에 나리는 비는/가신 님에다 눈물이라/에헤헤야 베짜는 아가씨/사랑노래는 베틀에 수심만 지노라.//답하답하 우지를 마라/이 베짜기가 늦어나 간다/에헤헤야 베짜는 아가씨/사랑노래는 베틀에 수심만 지노라.

16 오늘도 하 심심하니/베틀노래나 불러나 불러나/에헤야 베짜는 아가씨/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이누나.//들창밖에 나리는 비는/가신 님의 눈물이요/에헤야 베짜는 아가씨/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이누나.//아침에 짠 베는 월광단(月光緞)이요/밤에 짠 베는 일광단(日光緞)이로다/에헤야 베짜는 아가씨/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이누나.//들창밖에 나리는 비는/가신 님의 눈물이요/에헤야 베짜는 아가씨/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18 오늘날도 하심심하여/베틀노래나 불러나 보자/에헤야 베짜는 아가씨/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낮에 짜면 일광단(日光緞)이요/밤에 짜면은 월광(月光緞)이요/일광단 월광단 다 짜가지고/우러님 와이셔츠나 지아보자/에헤야 베짜는 아가씨/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J35 오늘날도 하 심심하걸래/베틀이나 놓아 볼까/에헤야 낮에 짜면 야광단(夜光緞)이요/밤에 짜면은 일광단(日光緞)이요/일광단 야광단 다 짜가주고/어느 영감님 수발할까/일광단 야광단 다 짜좌도(짜주어도)/이 할마니는 아무 소양(所用)이 절로 없네.

사발가

분포지역 : JL

J38 대북리 대북 박위순(여 67). J43 대북리 오복 김상네(여 64).

L65 방도리 방도 최형출(남 71).

석탄(石炭) 백탄(白炭) 타는데 연개(煙氣)만 풍풍 나고요
요내 가삼(가슴) 타는데 집(집)도 연개도 안난다

- J43 석탄백탄 타는데 연개도 짐도 나는데/요내 심정 타는데는 연개도 짐도
 안나네/석탄백탄 타는데 연개도 짐도 안나네/요내 가슴 타는데는 연개도
 짐도 안나네/어랑어랑 어어야 어랑어랑 어어야.
- L65 간다더니 니 또왔다 간다더니 니 또왔나/이왕지사(已往之事) 왔거들랑
 발채(발치)잠이나 자고가소/적어도 대장분데 발채잠이 웬말이냐/얼씨고 절
 씨고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새타령

분포지역 : K

K38 상남리 신덕하 최득출(남 83).

새가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온갖 못새가 날아든다
 새중에는 봉황(鳳凰)새 만구풍년(萬樹門前)에 풍년(豐年)새
 공기 죽자 공기 쭈르르 솟공솟탕 호박새
 남풍(南風)조창(조차) 떨쳐나니 구만리 장천(九萬里長天)에 대봉(大鵬)새
 문왕(文王)이 나가시니 기산조양(岐山朝陽)에 봉황(鳳凰)새
 무한(無限)히 기우(杞憂)깊은 회포 울고남는 공작(孔雀)새
 소선(蘇仙) 적벽(赤壁) 칠월야(七月夜) 알연장명(昱然長鳴) 백학(白鶴)이
 글자를 누 전하리 가인상사(佳人相思) 기러기
 생징장액(生憎帳額) 수고라니(繡孤鸞) 어여쁠사 채란(彩鸞)새
 위보가인(爲報家人) 수기서(數寄書)에 소식전튼 앵무(鸚鵡)새
 성성제혈(聲聲啼血) 염화지(染花枝)에 귀촉도(歸蜀道) 불여귀(不如歸)
 요서몽(遼西夢)을 놀라깨니 마고지산(莫教枝上) 피꼬리
 어사부중(御史府中)에 잠이 들었다

잠시잠깐 잔채이[잔챙이] 한마리 날아듭니다

성주풀이

분포지역 : AHKLN

A18 황암동 황암 전인식(남 71).

H16 남부리 정해용(남 79). H33 다개리 새마을 홍경표(남 67).

K15 삼정리 화정 김도식(남 70). K38 상남리 신덕하 최득출(남 83).

L24 이진리 한연술(남 68). L65 방도리 방도부락 최형출(남 71). L67 방도리 방도 박영식(남 73). L68 방도리 방도 최문식(남 75). L69 방도리 방도 박기산(남 80).

N32 신암리 윤상백(남 72).

어화 등실 네로구나 여보아라 소년들아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두손등 일랑둥
 사랑 슬쩍이 지아니요
 압록강(鴨綠江)이 되벼도(뒤집어져도) 죽어지니 내사랑
 우리도 이렇게 모였다가 한번 여차 실수가 되면
 만첩산중(萬疊山中)이 부모가 되노라
 어라 만세 어라 허구 기염이로구나

H16 해- 산은 보니 보던 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주야장천(晝夜長川)을 흘러가니 옛물이 있을소냐/인생도 물과 같이 한번 가시른 못오신다/말없는 청산(靑山)이요 태(態)없는 유수(流水)로다/값없는 청풍(淸風)인데 입자없는 명월(明月)이라. H33 낙양성(洛陽城) 십리허(十里許)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영웅호걸(英雄豪傑)이 몇몇이며 절대가인(絶代佳人)이 그 누구냐/우리도 어찌이 죽어지면은 저기저기 저 모양으로/에라 만수 에라

하고도 대신이야/에라 만수 에라 하고도 대신이야.//저건네 찬술발에 살
살기는 저 포수야/그 비둘기를 잡지마오 우리도 간밤에 꿈을꾸니/날과같
이 입을 잃고 입 찾으라고 살살이 기노라/에라 만수 에라 하고도 대신이
야.

K15 (앞부분 1음보 녹음 안됨) 소(沼)를 지어 조그만하게 배를 모아/한강
(漢江) 위에 띄어놓고 술이며 산중절난자 호걸복장군 새끼두며/절대가인
(絶代佳人) 늘이실꼬 여봐라 너농부야 예예/술렁술렁 배 띄어라 강릉(江
陵) 경포대(鏡浦臺)로 달마중가자/다만 앞에섰던 산이 보일듯 못하여도/
문득 길이 옳아가니 운소기풍(雲霄氣風) 이 아니냥/가자가자 등장(等狀)
가자 무슨 연주(筵奏)로 등장가나/늙은 홍안(紅顏)을 굽히지 말고 젊은
홍녀극난 연주로 등장가자/에라 그도 모도다 농담(弄談)일다 먹고쓰고 쓰
고먹고/끄러릴 거리고 놀아보려나/헤라 만수 어라 하고도 대신이야. K38
에라 만수 어라 대신이야/여봐라 말들어라 이내 현(汗) 말을 들어보오/소
두송장 유란두 살아생전(生前)에 병(病)이요/금낭산 이태백(李太白)도 한
분(한번) 죽음을 못 민(免)한다/우리가 요러쿰 노니다가 한분아차 실수 때면
/만수창염(萬壽蒼髯)에 우부(愚夫)가 될거라 이라 만수 이라 대신이야/낙
영사(洛陽城) 십리허(十里許) 높고낮인 저 무덤은 영웅호걸(英雄豪傑)이
몇몇인가/절세가인(絶世佳人)이 누구신고/통일천문 여예 통일천하(統一天
下) 진시황(秦始皇)은/아방궁(阿房宮)을 산령(舍廊)삼고 만리장성(萬里長
城)을 담장삼아/억만세(億萬世)로 믿었더니 삼천궁녀(三千宮女)가 시위
(侍衛)하고/육국제후(六國諸侯) 조공(朝貢)삼고 삼신산(三神山)이 멀고멀
아 불사약(不死藥)으루 구할손가/동남동녀(童男童女) 오백인(五百人)은
소식조창 돈절(頓絶)하고/사구평대(砂丘平臺) 저문날에 여산청조(驪山靑
鳥)가 실피(슬피)울고/수불세(雖不逝)라 수불세라 팔천적병(八千敵兵)이 훌
어지니/우미인(虞美人)은 손목을 잡고 비단강에 노래하고/오강(烏江) 풍락
수운중에 칠십여전(七十一)이 가소롭다/오배약등은 탄성하고 참우인생은 하였도다
/구호시우 중에 혼백조창 묻어있고/말잘하는 소진장의(蘇秦張儀)는 천하
를 횡행(橫行)하며/육국제후(六國諸侯)로 다친해도 염라대왕(閻羅大王)이
몬친해서/부성 세우(細雨)중에 혼백(魂魄)이 울어있고/아아 삼천갑자(三

千甲子) 동방석(東方朔)도 차일시(此一時)면 피일시(彼一時)라/죽은 후에도 그뿐이로구나.

L24 에라 만수야 에라하고도 대신이야/놀고놀고 놀고놀고 놀고놀고 놀아놀아/노자 영척(寧戚)은 소를 타고 맹호연(孟浩然)은 나귀타고/저 수좌는 학을 타고 우리 누넌은 구름타고/이태백(李太白) 고래타고 일대장관 저 분은/쪼그만 일엽선(一葉船) 집어타고/찌걱 찌걱찌걱 저어갈때/이도령(李道令) 탈거이 없어 춘향(春香)의 허리를 집어타고/둥둥둥 둥둥둥 둥둥둥 내 사랑아/니가 죽어도 내 몬살고 내가 죽어도 너 몬산다/없는 금전을 한탄 말고 깊이든 정 변치마라/놀고놀고 놀고놀고 닐니리 니나나나나나/니이 닐리리리리리/요장단에 춤몬 추면 왕장군(王將軍)도 고자(庫子)로다/지꺼(자기 것)없이 잘먹는놈 만고강산(萬古江山)에 한량(閑良)이다/지껏주고 못먹는건 만고강산에 고자리로다/이이 에라 만수. L65 에 에헤라 만수야 에라 허고도 대신이야/낙양산(洛陽城) 십리허(十里許)에 높고낮은 저 무덤은/영웅호걸(英雄豪傑)이 몇몇이나 질세가인(絕世佳人)이 그 누구며/화란춘풍(花爛春風) 미백년(未百年)은 소연행락(少年行樂)이 편시춘(片時春)이라 에라 만수. L67 에라 만수 에라 하고도 대신이야/남풍은 깊은밤에 돛대치는 저 사공아/못놀아 너 탄배는 일대 문장(一代文章)은 소동파(蘇東坡)요/적벽강(赤壁江) 배를타고 거짓속백(舉酒屬客) 하울적에/소연(少焉)동천(東山)에 월출(月出)이로다 에라그 만세. L68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성주(城主)여 성주로다 성주근본이 어드메요/경상도(慶尙道) 안동(安東)땅 제비원의 술썰반어/소평대평(小坪大坪)에 던졌더니 그 술이 점점자라나/낮으로는 일색(日色)씩고 밤으로는 이실(이슬)맞아/시월(十月)순풍에 눈비를 맞아서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떡 벌어졌구나/에라 만수. L69 (앞 1행 칭취불가)/단풍은 깊은밤에 돛대치는 저 사공아/못놀아 너 탄배는 일대문장은 소동파(蘇東坡)요/적벽강(赤壁江)에다 배를 띄어 거짓속백(舉酒屬客) 하월적에/서연(少焉)동산(東山)에 월출(月出)이 뗏구나/에라 에라 대신이야.

N32 허어 에라 만수 대신이요/청군이 죽은후에 항우(項羽)타던 오초말(烏騮馬)아/뒷산에 섰는 우리 소분큰 수불면쿠나/왕여에 우는 개는 마구하니 잡

사리오/개야개야 짓지마라 니가 짓으면 날이 새구나/새면은 내가죽네 내 죽기 싫지않으나/앞뭇보는 우리부친(父親)은 누구 전에 사리오/아깝다 부친네는 어이하리 예라 만수 대신이요.

신고산타령

분포지역 : CDM

C24 중산리 이화 김계남(59).

D14 중리 유말출(여 66). D33 천상리 천상 김제술(남 70).

M42 대안리 김천식(남 75).

눈깔사탕 먹을 때 단맛을 먹고요
몽둥이 뜸질할 때는 하늘이 뱅뱅도네
허랑허랑 어허야 어허랄마 디어라
모도가 내 사령(사랑)아

C24 (표본 외에)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고무공장 큰아가 단뽕
짐만 싸누나/허랑허랑 어허야 어허랄마 디어라/모두가 내사령(사랑)아.

D14 신고산이 우루루라 함흥차 가는 소래야/고무공장 큰애기 뽕도밥(도시락)
만 싸나. D33 어랑어랑 오호이야 오호이야 도야 내사령아/신고산이 우루
루 함흥차 떠나는 소리에/고무공장 큰애기 담뽕짐만 싸구나/어랑어랑 오
호이야 오호야 도야 내사령아.//가을바람 살살불어 낙엽이 우수수 지고요
/귀뚜라미 슬피울어 사람의 간장을 다 녹인다/어랑어랑 오호이야 오호이
야 도야 내사령아.

M42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가는 소리에/고무공장 큰애기 뽕도뽕(도시락)만
싸노나/어랑어랑 어허야 예야디야 내사랑이로다.//시오야(十五夜) 밝은달
구름속에 놓고/어여쁜 큰애기 내품안에 노누나/어랑어랑 어허야 예야디아

내사랑이로다.//니가 죽고 내가 살면 열녀비(烈女碑)로 세우려나/한강수
(漢江水) 깊은내 고기나 안고 죽자.

아리랑

분포지역 : DI

D29 천상리 천상 진동식(남 73).

I33 가천리 강당 복선술(남 77).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강주님 물새가 운다
임자가 잘나서 일색(一色)이나
마음이 어두워 한량(閑良)이지

D29 (표본 외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강주님 물새가 운다/니가죽
고 내가살면 무슨열녀가 되겠소/임당수 깊은물에 다가지고 없지/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기주소.

I33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아리랑 고개살콤 넘어간다/정든님 오시는
데 인사를 못해/행주처매 입에물고 입만 뺨긋하다/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아리랑 고개살콤 넘어간다.//정든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행주처매
(치마) 입에물고 입만 뺨긋하다/아리아리랑 씨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아
리랑 고개자초 넘어간다.//친고(親舊)야 몬친할거 밥장사친고/바람불고 비
오는날은 생짜증만 낸다/아리아리랑 씨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아리랑고
개 살콤 넘어간다.

양산도

분포지역 : ACDHIJKLMN

- A11 송정동 지담 박원윤(남 61). A18 황암동 황암 전인식(남 71). A37 방어동 상진 김상난(여 65). A38 방어동 상진 최도선(여 64). A43 방어동 중진 광명조(남 77).
- C4 천곡리 박하수(남 69).
- D19 사연리 곡연 오병천(남 76).
- H22 직동리 신흥 이상덕(남 55). H37 다개리 새마을 김숙이(여 58).
- I3 교동리 작하 임순근(남 64). I5 교동리 작하 박시록(남 76).
- J36 대북리 대북 조유숙(여 56).
- K32 중리 차진성(남 71).
- L58 학남리 회남 최윤규(남 57). L59 학남리 회남 이종명(남 74). L70 방도리 방도 김계호(남 70). L71 방도리 방도 문소용(남 71). L78 방도리 방도 박기산(남 80).
- M42 대안리 김천석(남 75). M55 망양리 터실 김정득(여 60).
- N11 서생리 성내 홍종필(여 57). N13 서생리 성내 조말분(여 57). N15 서생리 성내 이정순(여 50). N18 서생리 성내 이화천(여 63).

에이여 양덕(陽德) 맹산(孟山)에 흐르는 물은
 감돌아 든다고 부벽루하(浮碧樓下)로다
 삼산(三山)은 반락(半落)에 모란봉(牡丹峰) 되고
 이수중분(二水中分)은 능라도(綾羅島)로다

- A11 에이여 일락서산(日落西山)에 해는 똑 떨어지고/월출동방(月出東方)에 저 달이 등실 밝아/에루아 놓아라 못놓으리로다/능지(陵遲)를 하여도 못놓으리로다.//에이여 시월 보름달은 그림(구름)속에서 놀고/경노당(敬老堂) 노인들은 이방안에 논다/에루아 놓아라 아니 못놓으리로다. A18 에

여라 누어라 나는 못놓으리다/능지를 하여도 나는 못하리라/에이여 배떠
 난 민하도애 연기만 나고/임떠난 빈방안에 한숨만 자다/에여라 누어라 나
 는 못하리라/능지를 하여도 나는 못놓으리라.//에이여 울넙에 달넙에
 입 숨가(숨겨)놓고/호박잎이 난들난들 나는 못보겠네/아여라 누어라 나는
 못 따리라/능지를 하여도 나는 못놓으리이다. A37 에-야 간다 가노라 내
 가 돌아간다/허리널널 거리고 내가 돌아간다/에야라당당당 등기디여라 나
 는 못놓으리라/너거(너의) 누우(누이)를 나를줘도 나는 못놓으리라. A38
 에요 삼산(三山)은 밝아서(半落에) 모란봉(牡丹峰)이 되고/이수(二水)야
 건너는 능라도(綾羅島)로다/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지.//에요 가는 임허리
 를 안아 답씩안구/죽이라 살려라 사생결단(死生決斷)이라/아싸라 말어라
 너 그리말어/사람의 팔세(忽視)를 너 그리말어라/덩덩덩 더덩덩덩 놀아나
 보세. A43 에라 누어라 못놓으리라/능지를 하여도 못놓으리라/노자노자
 젊어서 놀아요/낙(나이) 많이 병이들면 못노리.

C4 헤야 무정세월(無情歲月)아 오고가지 말아라/아까운 내청춘 다 늙어진다/
 헤헤헤 놀아 아니 못살겠네/능지를 하여도 나는 못살겠네/추야 삼산(三山)
 은 반락(半落)에 모란봉(牡丹峰) 되고/이수(二水)야 중로(中路)에는 능라
 도(綾羅島)로다/헤헤헤 놀아 아니 못살겠네/태산(泰山)이 무너져도 나는
 못살겠다.

D19 에헤헤이애 산은 높고 물은 깊은데/네와 나는 누구냐/초승에 조각달은
 구름속에서 놀고/처녀 총각은 골방에서 논다.

H22 에헤이요 오동동등등등 춘양애/저달이 동동밝아 입에 등등 생각이/저리
 등등 난데 아서라 말어라/너 그래 마래(마라) 사람애 발기(忽視)를 하지를
 마라. H37 에헤에이요 경사났네 물레방구(물레방아)는 물을 안고 들고/뒷
 집에 김대롱(道令) 처자 안고 돈다/세월아 노월(네월)아 오고가지를 마라/
 아까운 이내 청춘이 다 늙어진다.//에헤헤이여 울넙에 담넙에 풀비는 총
 각/니언제 커여서 내 낭군이 되노/야야 총각아 그말을 마라/삼년마 커며
 너의낭군이 내가 된다.//에헤헤이여 양산(梁山) 통두산(通度寺) 경치가 좋
 아 팔도야 기성(岐生)이 다 모여들고/헤애 놓아라 나는 못놓으리로다 능지
 (陵遲)를 하여도 못살겠다.//에헤에이여 산천초목(山川草木)에 붙질러 놓

고 진주(晋州)야 난간(南江)에 물실러가고. //에헤에이여 시집을 몬살며 걱정이 되라/야마도 공장에 십풀러 가고.

13 에헤이야 노자 좃구나 젊어서 노자/늙어서 병이 들면 못노리로다/에헤야라 누워라 나는 못놓으리로구나/노는게 하야도 나는 못놓으리라/에헤야라 누워라 나는 못사리라/노는게 하야도 나는 못사리라/남쪽동해에 소식을 들고/오동아 처소를 넘나나든다/에헤야라 누워라 나는 못놓으리로구나/노는게 하야도 나는 못놓으리라/날 다려 가거라 날 모시가라/하양(漢陽)아 낭군(郎君)아 나를 다려가자/널 다리고 갈 마음은 야마야마 같고/칭칭시하(層層侍下)라 못다려고 가네/에헤야라 누워라 나는 못놓으리로구나/노는게 하야도 나는 못놓으리라. 15 에헤 수여 오다 가다가 만나도 정들면 살고/귀밑머리 마주 벌어도 정안들면 못살아/세월아 니월(네월)아 니 가진마라/알뜰한 우리청춘 다 늙어간다/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아리랑 고개를 넘겨주소.

J36 사창(紗窓)에 달이 동동 밝아 이내 동동 생각이 절로 난다/에화 들어 나는 못놓으리로다/자라던 풀목이 척늘어져도 나는 못놓으리/이야 문수산(文殊山)⁵⁾허리 연개(연기)는 살 까라지고/압록강(鴨綠江) 시영(垂楊)버들 칠 늘어진다/에화 놓아 나는 못놓으리로다.

K32 에헤이여 가노라 가노라 나는 돌아간다/얼떨떨거리고 나는 돌아간다/삼산(三山)은 반락(半落)에 모란봉(牡丹峰)되고/이수중분(二水中分)에 능라도(綾羅島)로다. //에헤이여 산이 높아야 골이 넓지/좁은 여자속이 너리고 깊을소냐/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 마라/장안(長安)에 호걸(豪傑)이 다 늙어간다.

L58 에헤이야 니가 잘나야 일색(一色)이 되나/내눈이 어두워 한량(閑良)이로다. //에이이야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었노/정거정(停車場) 마당에 한강수(漢江水) 되누나/에낭낭 동자디어라 나는 못놓으리라/니가야 죽고 내가야 살아도 나는야 못살리라. //에헤이야 철독을 따라서 입을 찾아가서/처음부터 울음소리 임이 생각난다. //이하이에 일본(日本)아 동경(東京)이 얼마나 좋아/꽃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連絡船) 타나/에라 우에라 못놓으리로

5) 울산군 청량면(靑良面)에 있는 산.

다.//이하이에 새끼야 백(百)발은 썰(썰)떼가 있고/사람의 백발(白髮)은 썰떼가 없네/에라 우에라 못놓으리로다.//에에이야 황해도(黃海道) 봉산(鳳山)에 인심이 좋아/노랑돈 한푼에 큰아기 열둘이 논다/에라 두어라 못놓으리로다/아무리 효자도 물이나 좋건마는. L59 에에이야 술은 술술이 잘 넘어가고/찬물은 냉수(冷水)는 빙빙돈다.//에에이에 산천초목(山川草木)에 불질러도/진주(晉州)야 남강(南江)에 물 질러간다. L70 에헤이여 치바다(쳐다) 보아라 한짝나무 비어서/넝바다(내려다) 보아라 지도사이가 난다/어야라 노어라 나는 못놓겠네/능지를 하여도 나는 못놓겠다. L71 이몸이 학(鶴)이나 되어 나래 우에다 사랑을 싣고/천만리 날아를 가도 이 별없는 봄나비로다/적어도 오변이라면 구천지만리/똥낭치 말지나 비고 양인광대가 그지라르나/판판이 믿었던 정을 나를 보고서 어드로 가나/백년(百年)사자 웃었던양은 요모양될 줄은 내 몰랐네. L78 에헤이여 노자노자 젊어서 놀아/늙고 병들면 나는 못노리이다/에야라 놓어라 나는 못놓네/능지를 하여도 나는 못놓여다.

M42 에헤로아 못놓으리로다/아무리 하여도 나는 못놓으리라/헤여 우리가 사더라 한 오만년 사나/사는대로 사다가다 세상을 마치로다/세월세월아 요망(妖妄)한 철아 오고가지 마소/아깝운 이내 청춘이 다 늙어간다/헤여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싶어 지나/나를 바리고 가는 님은 가고싶어 가나/에라 놓아라 몬사리로다/열놈이 죽어도 나는 못놓으리라/헤여 산중에 귀물(貴物)은 멀구(머루)다래요/인간에 귀물은 정든 님이로다/아시라 말어라 너 팔세(忽視)마라/사람의 가죽을 쓰고 너 그러지를 마라/에라 놓아라 나는 못놓으리로라/열놈이 죽어도 나는 못놓으리라/헤여 높은 산중에 외롭은 늙은/이내나 죽어서나 지도 홀로나 세나/에라 들이 뛰어라 못살리로다/아무리 하여도 나는 못놓으리라/헤여 산천초목에 불을 질러놓고/진주(晉州)나 남산(南江)에 물 실러가자/에라 놓어라 몬살리로그/아무리 하여도 나는 못놓으리라/헤여 일본(日本)을 간다고 연락선(連絡船)을 타고/타향산천 만나니 눈물이 난다/에라 놓어라 몬살리로그나/아무리 하여도 나는 못놓으리라. M55 에헤이요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어/정기정(停車場)마당이 한강수(漢江水)되나/에라둥둥 둥기디어라 아니 못놓으리오/사람의 팔

세(忽視)를 네가 그리마라.

N11 울러라 더 울러라 청춘가 더울러/능기(陵運)능기를 하여도 나는 못놀겠네 /에야라 놓어라 못놓으리рода/너거(너의) 누나를 나를 쥐도 나는 못놀겠네. N13 에헤이여 너정 나정은 모지랑(몽당) 빗자리(빗자루) 싹싹 썰어가/한강 철독에 열고 없는듯 있는듯이 살어나 보자/에여라 놓어라 동등기 지어라/못놓으리рода 능계(陵運)를 하여도 내 못놓으리рода. //에헤이에 삼산(三山)⁶⁾읍내(邑內) 물레방아 물을 안고 돌고/우리집 우린(우리)님은 나를 안고돈다. //에헤이여 바람아 강풍아 불지를 말어라/아깁은 우리청춘 다 늙어지네. //에헤이여 물이러 가는채로 술걸러이고/오동나무 수풀속에 임 찾아 가네/에라 놓아라 등기 디여라 못노리рода/능계를 하여도 내 못놓으리라. //에헤이여 누가 내였노 누구가 지였노/사랑에 두글자 누가 냈노/에라 놓어라 등기 디여라 못노리рода/능계를 하여도 내 못놓으리рода. N15 에헤이요 술과 담배는 나 심중 알어/한품에 든 님은 나 심중 모른다 /에여라 놓아라 나는 못놓으리라/아무리 하여도 못놓으리рода. //에헤이여 너가 날만큼 생각을 하여/까시(가시)밭이 천리(千里)라도 밭벗고 가지/에여라 놓아라 나는 못놓으리고/아무리 하여도 못놓으리рода/에헤이여 한다리 들어다 기차에 얹어놓고/오는듯이 돌아다보니 고향생각 난다/에여라 놓아라 나는 못놓으리라/에여라 놓아라 나는 못놓으리라/아무리 하여도 못놓으리рода. //에헤이여 신작로(新作路) 널러서 길걷기 좋고/전깃불 밝아서 임찾기 좋데/에헤여라 놓아라 이다지 못놓으리라/아무리 하여도 못놓으리рода. //에헤이여 신작로 복판에 하이아가 놓고/하이아 복판에 신부 신랑이 논다/아서라 말어라 내가 못놓으리라/아무리 하여도 못놓으리рода. //에헤이요 술은 술술이 잘 넘어가고/찬물은 냉수는 입안에 뱅뱅돈다/에여라 놓아라 나는 못놓으리라/아무리 하여도 못놓으리рода. //에헤이요 양산(梁山)⁷⁾읍내 물레방아는 나를 안고 돌고/어기여차 우린님은 나를안고

6) 울산시에 있는 동명(洞名). 삼산(三山)은 원래 울산평야 한가운데 있던 산으로 오산(鰲山)이라고 하다. 들 가운데 세 봉우리를 이루었다 하여 삼산이라 불렀는데 일제 때에 군용 비행장을 만드느라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산은 없고 평지만 남았으며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7) 경남 울산군과 부산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군.

돈다/에여라 놓아라 나는 못놓으리라/아무리 하여도 못놓으리르다. N18
영변(寧邊) 기차(汽車) 야산등대(藥山東臺)라네/정든님 실어서 떠나신다/
곶둥아 연개가 날고 말고/요네야 심정을 다 녹혀놓고.

장기타령

분포지역 : H

H16 남부리 정해웅(남 79).

에헤이 자룡(子龍, 趙雲)아 말놓고 찬시절마다
만인졸(萬人卒)이 다 놀란다 비수(匕首)는 어데다 두고
두르느니 장창(長槍)인양

정선아리랑

분포지역 : AJK

A18 황성동 황암 전인식(남 71).

J26 대북리 대북 이방두(남 70).

K38 상남리 신덕하 최득출(남 83).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를 나를 뱉기나 주소
삼산(三山)앞에 물레방아는 사시장천(四時長漣)을 빙글빙글도는데
우리집 저 도둑놈은 무엇을 안고도는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를 나를 넘기나 주소

J26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명사십리(明沙十里)가 없었으면 해당화(海棠花)는 왜피면/춘풍가절(春風佳節)이 없었으면 두견(杜鵑)새는 왜우나/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K38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로 날 넘게라/하리(허리)꿈 짜리고기 똥판파진 큰아가/날마 쫄쫄 따레라무나/따리고 싶은 마음은 조수(潮水)바닥에 물밀듯 하건마는/시부모(孀父母) 원당자 기리고 내가 몬다니겠네/니가죽고 내가살면은 열녀각(烈女閣) 서나/내가 죽고 니가살아야 열녀비(烈女碑) 서지.

창부타령

분포지역 : ACDFHIJKLMNOP

A4 연암동 상방 김병연(여 62). A12 송정동 지당 심호구(남 78). A37 방어동 상진 김상난(여 65). A38 방어동 상진 최도선(여 64). A42 방어동 상진 김가외(여 72).

C4 농소면 천곡 박하수(남 76).

D19 사연리 곡연 오병천(남 76). D20 사연리 곡연 김양덕(여 66). D24 입암리 진목 이덕봉(여 87). D32 중리 유말출(여 66). D35 천상리 천상 김말출(여 57). D36 천상리 천상 박정태(여 65). D41 천상리 천상 김임순(여 56).

F11 서하리 대정 김학현(남 79).

H2 반천리 미연 김종현(남 54). H14 직동리 신흥 강모숙(여 67). H22 직동리 신흥 이상덕(남 55). H25 직동리 신화 손이천(남 54). H34 다개리 새마을 김복룡(남 55) H35 다개리 새마을 홍문표(남 63). H37 다개리 새마

을 김숙이(여 58).

- J3 교동리 작하 임순근(남 64). J5 교동리 작하 박시록(남 76). J6 교동리 작하 양임수(여 62). J34 가천리 강당 김옥순(여 59).
 J36 대북리 대북 조유숙(여 56). J38 대북리 대북 박위순(여 67). J39 대북리 대북 김원출(여 64).
 K12 삼정리 화정 박화(여 62).
 L1 강양리 화회 신말순(여 62). L2 강양리 화회 강순이(여 62). L3 강양리 화회 박두열(여 61). L4 강양리 화회 우식이(여 61). L7 강양리 화회 정달김(여 66). L23 이진리 최봉수(남 74). L38 삼평리 종동 박은필(여 53). L50 학남리 회학 이차조(여 58). L58 학남리 회남 최운규(남 57). L60 학남리 회남 김막순(여 56). L72 방도리 방도 고갑출(남 73).
 M7 삼광리 중광 신수덕(여 61). M11 삼광리 중광 서인구(남 69). M55 망양리 터실 김정득(여 60).
 N15 서생리 성내 이정순(여 50). N23 화정리 구진 오영주(남 69). N24 화정리 구진 홍재인(남 53). N30 신암리 신암 팽찬안(남 77). N32 신암리 신암 윤상백(남 72). N33 신암리 신암 김기용(남 76).

등장(等狀)갈새 등장갈새
 하늘님 덕택을 등장가자
 무신 연주(筵奏)로 등장가노
 늙은 사람 죽지를 말고
 젊은 사람 늙지를 말구
 그런 연주 등장가소
 얼시구 절시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A12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아니 쉬지는 못하리라/강산(江山)에 목동(牧童)들아 온갖 잡초(雜草)로 다 비어도/쑥대 한포기 날 꺾어주소/그 쑥대 고이길러 낚숫대(낚싯대) 하나를 장만하여/선질(선질) 청소(淸沼) 맑은

물에 금붕어(金붕어) 한 마리/내 늙아서 백년해로(百年偕老)로 하오리다/
 열시구 절시구 지화자 좋구나/아니 노지는 못하리라.//아하 어화등등 내
 사랑 어화등등 내사랑아/노세 노세노세 젊어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화무
 는 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저달 차면 기우니/일생(人生) 일장은 춘몽(一
 場春夢)인데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띠리리 띠리리 띠 띠리리/태평성대(太
 平聖代)가 열리로다/아하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높은산에 높낮이 있고
 열은산에 (1음보 청취불가)/억수장마에 비퍼붓듯 대천(大川)바다 물미듯
 이/이 자중(座中)에야 오신양반 만수무강(萬壽無疆)을 하오소서/병고자
 즉즉 회척목고 오자 부귀영화(富貴榮華)/(장고소리 때문에 1행 청취불가)
 /삼재구설(三災口舌) 삼재화난(三災八難) 사백사병을 소멸(消滅)하고/일년
 삼백육십일을 하라침(하루아침)같이 넘어가소/열시구 절시구 아니놀지를
 못하리라/아하 아니놀지를 못하리라.//간밤에 꿈 좋더니 넘기신(계신) 곳에
 편지왔네/편지받아 뜯어보니 너의 소식이 완연(宛然)하다/간밤에 꿈 좋더
 니 너의결에 편지왔소/편지받아 뜯어보니 너의 필적(筆跡)이 완연하다/동
 자(童子)야 먹갈아라 너의 편지를 답장(答狀)씨라/검은 먹과 흰 종이는
 너의 얼굴을 볼건마는/기리는 저 붓대는 날같이 기릴 줄만 알고/너의 얼
 굴 왜못보노/열시구절시구 지화자 좋구나 아니노지 못하리라.//동백수(冬
 柏樹) 푸른가지 높다랗게 끈을매고/녹의홍상(綠衣紅裳) 미인들은 오락가
 락이 추천(鞭韃)한데/우리 너는 어덜가고 추천할 줄을 모리더냐/열시구절
 시구 지화자 좋다 아니노지 못하리라.//세월아 가지마라 니가 가면은 난두
 (나도)가네/나의 청춘이 늙어지니 다시 젊기가 어렵구나/맹사십리(明沙十
 里) 해동화(海棠花)야 꽃이 진다고 서러마라/맹년(明年)삼춘이 돌아오면 그
 꽃 다시 피건마는/우리 인생은 한번가면 다시 젊기가 어렵구나/열시구절
 시구 지화자 좋구나 아니노지 못하리라/아니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전라
 도(全羅道) 전라도 지리산(智異山) 밑에 동북북나무 서었는데/해도야 열고
 달도 열어 온갖청춘 다열었네/해는 따다가 안을 대고 달따다 걸을 대고/
 조무순이 상침(上針)놓고 무지개야 선을 둘따/팔자 동동 끈을 달아 서방
 님 선물을 보내보자/아니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아니 쉬지는 못하리라.//
 노자면 어찌노노 영척(寧戚)은 소를 타고/맹호연(孟浩然)은 나귀타고 적

송자(赤松子) 학(鶴)을 타고/이대백(李太白)이는 고래타고 이몽룡(李夢龍)은 춘향(春香) 닮네/이내몸은 탈것이 없어 일엽편주(一葉片舟) 띄어 놓고/술이면 안주면 많이실고/거문고 가야금 띠리대때 떨리리나는 북장구가득실고/조기 신주야 배들러라 술렁술렁 배질해라/강릉(江陵) 경포대(鏡浦臺) 달맞이 가자/아니 노지는 못하리라/아하등등 내사랑아 어화등등 내 사랑아/노다가자 노다가자 아니나놀고 무엇하리. A37 얼씨구나 좋나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백구(白鷗)야 백구야 나지를 마라 너를 쫓아나 안간다/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대장부 살림살이 요만 하면은 만족하리/이마로 조마로 빙빙도는 장모님요 약주청주(藥酒淸酒)를 내야놓으소/약주청주는 독안에 있고 장모님 딸이나 내야놓으소/얼씨구 좋네 절씨구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하날(하늘)겉은 서방님이 태산(泰山) 겉은 병이들아/비네(비너)팔고 반지를 팔아 탕약국(湯藥局)에 약을지어/청로화로(靑銅火爐)에다 불을피야 약탕관(藥湯罐)에 약을얹혀/북파수건에 약을짜여 임의방을 들어서니/이내 숨이 간단말가/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네 아무리 생각해도 몬살리라.//남기 늙어 고목(古木)이 되니 오던 새도 아니오고/나의 청춘이 늙어지니 오던님도 들어서네/얼씨구 좋나 지화자 좋아 아니놀고 못하리라.//바람불어 늙은남기 눈비온다꼬 일어나나/눈비 와야(와서) 늙은남기 바람분다꼬 일어나나/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아 아니노지는 못하리라.//포름포름 봄배추는 찬이슬 오들마(오기만) 기다리고/옥에간힌 춘향(春香)이는 이대룡(李道令) 오들마 기다린다/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아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저건네 잔술발에 술술기는 저포수야 그 콩(콩) 한마리를 잡질마오/간밤에 꿈을꾸니 날과같이 입을얹고/입차는 다꼬 술술긴다/얼씨구 좋네 절씨구나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A38 에- 아니놀고는 못살리라/구야구야 담방구(담방고, 담배)야 동래부(東萊府)사는 담방구야/늙어 세상은 다 버리고 담뱃대 재롱만 질로난다/살근달살근달 쌀씻는 소리 도긋대 장단에 춤을춘다/꼬치모(교추모종) 한포기 못꼽는 년이 이망(이마)에 털이는 어이뵈노/얼씨구 좋고나 지와자 좋네 아니놀고는 못살겠다.//에- 아니놀지는 못하리라/산도산도 봄철이라 온갖꽃잎이 다피노라/입도입도 밤중인가 오르는 풀을 나를뒹네/얼씨구 좋구나 지와자 좋구나 아

니놓고는 못살리라. A42 해 다지고 정근(저문)날에 옷갓을 하고 어데가요 /첩의집을 가실라면 나죽는 풀이나 보고가요/첩의집은 꽃밭이고 나의야 집은 연못이라/꽃과 나비는 봄한철이고 연못의 금붕어(금붕어) 사시절(四時節)로/얼씨구절씨구 아니놓고 못살래라. //얼씨구절씨구 아니놓고 못할래라/기다리다 못하여서 잠이잠간 들었더니/새벽바람 풍지(風紙) 소리에 잠이깨어 일어나니/임은적적 간곳없고 뭉썰 송풍(松風)만 날속인다/가뜩케나 마음 산란한데 명월(明月)조차 왜밝히노/얼씨구절씨고 아니놓고 못살래라.

C4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삼천갑자(三千甲子) 동방석(東方朔)은 삼천갑으로 살았으대/염라대왕(閻羅大王)을 못당홀러서 한번죽음을 못민(免)하고/말갈하는 소진장의(蘇秦張儀)는 육국(六國)나라를 다 당할러도/염라대왕에 문부를 불문길러 한번 죽음을 못민하고/만고영웅(萬古英雄)진시황(秦始皇)은 만고영웅같이 살았시되/추풍벽력(秋風霹靂)에 꿈이로다. //아니아니 노지는 못하리라/진국명산(鎭國名山) 만장봉(萬丈峯)에 바람에 불으이/쓰러진 나무 눈비를 맞아서 일어날까/피병들어 우난(우는)님은 약을 신다면(쓴다면) 일어나나/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D19 아니 아니노던 못하리로다/풍들었네 풍들었네 우리강산에 삼천리(三千里) 풍들었네/푸린것은 버들이요 누린것은 피꼬리다/황금같은 피꼬리는 청산으로 내왕하고/백설같은 흰나비는 장다리발로 날아든다/얼씨구절씨구 기와자자자 좋네 아니노던 못하리로다. //높은산에 눈날린듯 얇은산에는 재날린듯/역수에 장마에 비퍼붓듯 대천바다에 물밀린듯/우리대한 인민들은 만수무강(萬壽無疆)으로 비나이다/얼씨구절씨구 지화자자자 좋네 어찌좋은지 모르겠네. //죽일년아 살릴년아 대동강변(大同江邊)에 목썰년아/병든 가장(家長)은 누여놓고 어린자식은 잠들여놓고/오동추야(梧桐秋夜)달밝은 밤에 밤봇짐이 웬말이냐/니가 어디를 가면 잘될줄 아느냐/가다가 죽으리라 이 잡년아/얼씨구야얼씨구 지와자자자 좋다 어찌좋은지 모르겠네. D20 뚜겁뚜겁 움뚜겁아 무슨 정에도 잠이오노/초산에 남기좋아 방이 덥어서 잠이오네/얼씨구나좋다 정말로좋다 아니노지를 못하리라/아니 사

지를 못하리라.//잎이 껴여도 아니노고 꽃이 피여도 아니오고/쫓이 되어도 아니오고 썩이 되니 날 찾아오네/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다. D24 이 세상 호걸선배(豪傑선배) 강남풍경(江南風景) 구경갈때/무차친 육관대도포 허리능청 둘러입고/광대베를 둘러메고 과거(科擧)하러 가실난데/그러구러 가고나니 어허 심갈(심갈)이 되었구나/헌베차호 얼어입고 헌베머를 둘러메고/고냥을 내리오니 대문밖에 들어서니/주지주지 주지끝에 할말이 전히없어/아깝다 우리아내 동네방창(方暢) 고운얼굴 향낭(香囊)없어 다듯었네/가슴에 만치보니 종이바리 채매(채마)요/장게이(쟁강이) 만치보니 장게이 훗단 때깎이요. D32 백설(白雪)같은 흰나비아 부모님 상(喪)을 입었구나/소복단장(素服淡粧) 낫기(낫게)하고 백장다리발에도 날아든다/짱지꽃도 꽃이라꼬 오는 별이를 박대(薄待)하나.//임오실때 되었는데 원수년의 빗바람/임기신(예신) 곳을 알아야 나막신 우산을 보내지/에여라났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나간장 씨리썰썰 다늑인다/남글비여 남글비여 학성공원(鶴城公園)에 남글비여/배를모아 배를모아 장신포(長生浦)⁸⁾ 앞강에 배를모아/임도타고 나도타고 팔도강산(八道江山)을 유람가자. D35 만세천자(萬世天子) 진시황(秦始皇)은 아방궁(阿房宮)을 사랑(舍廊)삼고/만리야 장천(萬里長城)을 마당삼아 육국제후(六國諸侯) 조공(朝貢)을 하면/삼천궁녀(三千宮女)가 사랑하니 원하는것이 불사약(不死藥)은/삼신산(三神山)에 있다고 해도 구해낼이가 없었구나/동남동녀(童男童女) 오백인(五百人)은 불사약 구하러 보냈더니/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도 둔절(頓絕)하네. D36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창외삼경세우시(窓外三更細雨時)에 양인심사(兩人心思) 깊은애정/야반무인사어시(夜半無人私語時)에 백년동락(百年同樂) 굳은언약/이별될 줄은 어이 아리/동작대(銅雀臺) 봄바람은 주랑(周郎)의 비웃음이요/장신궁(長信宮)의 가을달은 방랑자(放浪者)의 회포(懷抱)로다/지척(咫尺)이 천리(千里)되어 은하(銀河)를 사이하고/까막까지 흠어졌으니 건너 갈길이 바이없네/어안(魚雁)이 둔절(頓絕)하니 소식인들 뉘진하리/못보아 한(恨)이되고 못잊어서 원수로다/가뜩이나 썩은간장 이밤 새우기 어려워라/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아요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D41 릴리리리

8) 울산시 남구에 있는 동명(洞名). 예전부터 고래잡이로 유명한 곳임.

리리리리리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서산에 헤기울고 황혼이 짙었는데/안 오는 님을 기다리며 마음이 조일적에/동산에 달이돋아 원친하를 비쳐있고 /외기러기 홀로나서 짝을불러 슬피우니/원망스런 우리님을 한없이 기다리다/일경이경 삼사오경 어느덧이 새벽일세/장장추야(長長秋夜) 긴긴밤을 저한정올며 잠못들때/상사일념(相思一念) 애타는줄 그대는 아시는가/둘데 없는 이내심사 어디다 비쳐불고/얼시구나 절시구시구시구나 지화자좋아요 태평성대(太平聖代)가 여기로다.//추강월색(秋江月色) 달밝은밤에 덧없는 이내몸이/봄이왔네 봄이왔네 이강산 삼천리에 봄이왔네/방실방실 웃는꽃은 우줄우줄 능수버들/비비배배 종달새는 줄줄 흐르는 물소리라/앞집수답이 꼬끼요 울고 뒷집삼살이 콩콩진다/앞논에 암소가 음메음메 뒷메 산꿩(鶩)이 기기기길/울리고가는 큰애기걸음 산천홍이 사뿐사뿐 아지장아장 걸어간다/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놀지는 못하리라.//지리하고도 긴 이별은 생각지 못하고 목이메어/잠을자면 잊을까해도 잠만 진정코 못들겠네/차라리 몰랐더라면 이별인줄 몰랐을것을/사귄것이 원수로구나 복 많이 준것이 대원수라/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놀지는 못하리라.//섬섬옥수(纖纖玉手) 부여를 잡고 만단정회(萬端情懷) 어디든고/조물(造物)이 시기(猜忌)하여 이별될줄을 누가아리/이리생각 저리등질 생각끝에는 한숨일세/알뎡고도 할수없고 분하고도 그리워라/아픈가슴을 움쳐잡고 나만 혼자만이 될때/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놀지는 못하리라.//한밤꿈에 기러기보고 오늘아침 오동(梧桐)에 까치앉어 지저귀니/안절부절 반가운 편지오까 그리던 임이오까/가대리고 바랬더니 일락서산(日落西山) 해는지고 꿈을아니 잊을쏘냐/우리도 언제나 유정님만나 하루종사 태평시절(太平時節) 이별없이나 살어볼까/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놀지는 못하리라.//하늘같이 높은사랑 황해(河海)같이도 깊은사랑/칠년대한(七年大旱) 가문날에 빗발같이도 반긴사랑/구년지수(九年之水) 긴장마에 햇발같이도 깊은사랑/당명황(唐明皇)에 양귀비(楊貴妃)요 이대룡(李道令)에는 춘향(春香)이라/일년열두달 삼백육십일 하루만못봐도 못살겠네/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네 아니나놀지는 못하리라.

F11 개야개야 검둥개야 허리능청 검둥개야/오뉴월 부덕답에 날나리살밥 돈바

키기/목기실버서(떡기싫어서) 너를줬나 맛이없어서 너를줬나/밤중밤중 야
 밤중에 오신님보고 짓지마라꼬 너를줬지/얼씨구나 좋네 지와자 좋네 아니노
 지는 못하리라.//정월송학(正月松鶴)은 속속한 내맘 이월매조(二月梅鳥)
 입을삼고/삼월(三月)사꾸라가 산란내하니 사월(四月)혹싸리가 허송하고/
 오월난초(五月蘭草)가 나는난 나비 유월(六月)에 목단(牡丹)에 춤을춘다/
 칠월(七月)달홍돼지 홀로누아 팔월(八月)달공산(空山) 달밝았네/구월국중
 (九月菊中) 꾀오난 내맘이 시월단풍(十月丹楓)에 떨어지네/동짓날에 오실
 라컨님이 선달이되도 아니오네/얼씨구나 좋네 지와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
 리라.//아니아니 아니노지는 못하리라/배떠나는 선창(船艙)가에는 물결이
 파도만 남아있고/기차떠나는 서울역에는 검은연개(연기)판 남아있고/이떠
 나는 빈방안에는 한심(한숨)근심만 남아있고/오입장들이 노던 방에는 장구
 열채가 부지기(不知其數)요/오입장들이 노던나 자래(자리)는 비늘이 떨어져
 부지기요/산신사(三神山) 옛노인이 바독(바둑)을 뜨자고 날чат던강/술잘묵는
 이태백(李太白)이가 술을묵자고 날чат던강.//꼬꼬달(닭)야 우지마라 궁공개
 야 짓지마라/애기애기 잠비재(잠재워)놓고 정든넌품에 잠들어보자/얼씨구
 나 좋네 지와자 좋다 아니노지는 못하겠네.//노자는 친구는 수수만인(數數
 萬人)이 되고요/잠자는 친구는 단둘이로다/술벤이(술개) 뜨자마자 빼가리
 (뺨아리) 간곳없고/뺨구철 나자마자 인간됐구나/놀러가잔다 놀러마가잔다
 월순이방으로 놀러마가잔다/월순이는 마 간곳이나 없고요 감망지(가마우
 지) 한쌍마 넘늘어나구나.

H2 이십안쪽 열아홉에 첫장가를 갈랐더니/앞집에 궁합(宮合)을 보고 뒷집에
 다 책략(冊曆)을 보니/궁합에도 못갈장개(장가) 책략에도 못갈장개/내가 좋아
 가는장개 어느누가 말릴소냐/고개고개 삼십고개 한고개나 넘어가니/까막간
 치(까막까치)가 진동한다 두째고개 넘어가니/여우새끼가 길을막고 시째고개
 넘어가니/이썩늬청 나서나 앞에오는 남자양반/뒤에오신 상객(上客)어른 오
 던길을 돌아서소/부구(부구)로다 부구로다 신부(新婦)죽은 부구로다/두손을
 높이들고 한손을 받아보니/부구로다 부구로세 신부죽은 부구로세/이왕지세
 (已往之事) 왔는길에 신부집을 나는가요/첫대문을 들어서니 꽃장사가 꽃을

짓고/두째대문 들어가니 널장사가 널을짜고/시째대문 들어가니 상도꾼(상두
 꾀)이 발을맞차/네째대문 들어가니 자인장모(丈人丈母) 석나서야/사위사위
 내사위야 울고갈길을 왜왔던가/이왕지사 왔거들랑 신부방을 들어가자/신부
 방을 들어가니 두손을 눈을막아/자는듯이 가고없다 일어나소 일어나소/당
 신을 바래고 내왔더니 시간바빠 일어나소/가고없네 가고없네 매정허니 가
 고없네/나를위해 해논입석(음식) 상도꾼도 많이주소/간다간다 나는간다 우
 리집을 나는가요/첫대문을 나올라이 처남(妻男)된이 석나서야/자형자형 우
 리자형 인지가면 언제올래/뒗동산 죽은고목 꽃피거든 내오리라/두째대문
 나올라니 처제(妻弟)된이 석나서야/형부형부 우리형부 인지가면 언제올래/
 살강밑에 흘린밥티 움나거든 내오리라/시째대문 나올라니 자인장모 나오시
 나/사위사위 내사위야 인제가면 언제올래/술을승가 술을승가 들가에 술을
 승가/그술이 장차커거든 옥도끼를 쪼저가주/금도끼로 다듬어서 그배한쌍
 모아가주/그배타고 내오리라 얼씨구좋다 지화자좋다/이렇게 좋으면 논팔아
 무떡어]//벽장안에 금시계는 딸각정털겨쩍 하건마는/니가가면 세월이가고
 세월이가면 나도간다/너가가면 곱게가지 아깁운내청춘 왜데려가나/아니노
 지는 못하리라 이러곰좋다가는 논팔아먹네/아니노지는 못하리라. H14 개
 야개야 꺾둥개야 허리나능청야 삼살개야/오뉴월오뉴월 부던답에 흰쌀밥에
 돈바깍이(따구미)/먹기싫어 너를줬나 뒷집에 김대룡(道命) 오거들랑/짓지말
 고 꼬리나 살살살 흔들라고서 너를줬지/얼씨구나 좋구나 정말좋아 아니나노
 지는 못하리라. H22 에헤에 아니노지는 못하리라/화초동방(華燭洞房) 첫날
 저녁에 부끄럼도 가이없이/밤이점점 깊어나오니 우리님 인정도 깊으데요/
 얼씨구나 좋다 지라자 좋네 요리کم 좋다가는 딸놓겠다. H25 꽃이라도 낙화
 (落花)가되면 오던나비도 아니오고/납기라도 고목(古木)이되면 오던새도
 아니오고/우리아청춘 늙어나지면 오던님도 아니오네/기차떠난 철둑가에 꺾
 은연기만 남아있고/임떠나간 인천항구(仁川港口)에 파도야 물결만 남아있
 네/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놀지는 못하리라.//정월이라 초하룻날은
 만인간(萬人間)의 명절인데/집집마다 밤을떠놓고 자손의 만대를 빌건마는/
 우리아임은 어두로가고 정월초하루도 모르는가/삼월이라 삼짍(삼짍)날은 연
 자(燕子)제비가 오는날에/강남갔던 연자제비 집으로 찾아서 오건마는/우리

야임은 어두로가고 삼월삼진도 모르는가/사월이라 초파일(初八日)날은 석가모니(釋迦牟尼) 탄생날에/저절마다 등으로달고 나무아미타불 하건마는/우리야임은 어두로가고 석가모니탄생도 모르는가/꿈아꿈아 무정한꿈아 왔었던임을 왜보냈노/왔던임은 보내지말구 잠든이몸을 깨와주지/일후에 또한 번오거든 입을잡고서 날깨와주소/어하씨구나 저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꿈에라야 왔었던님이 깨워보니 간곳없네/타알탄(탄탄히)이 믿었던임아 나를두고서 어들갔노/꿈에라야 하시라망정 자주자주 오기나 하여주소/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겠네.//해다지고 저무신날에 옷갓 하고서 어들가요/첩우야 집에 가실라거등 나죽는풀만 보고가소/첩우야 집은 꽃밭이라면 나의집은 연못이라/꽃과나비는 봄한절이요 연못의 고기는 사철이라/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겠네.//사랑아 내사랑아 이 내사랑이 어딴누/오날날에 처음 만나 오늘저녁에 깊이놀자/사랑은 일평생에 한번벤이만 올시로다/아 내사랑 남주지말고 남에사랑에 탐내지마라/일편단심(一片丹心) 맺힌 이십정 부디부디만 간직하소/술을 체(辭)하라먹나 이내십정을 달래라고 목나/일편단심 맺힌 이십정 굶이굶이도 한숨이야/오날날도 이술한잔에 이내십정을 달래어주네/아하 저건네 저 태산밑에 나물캐는 저처녀야/물을라니 남이 알게고 손짓하니까 너모르고. H34 얼씨구 좋을씨구 지화자 좋을씨구/반달걸은 울엄마요 온달같이도 나를길러/돈닷돈을 재물(財物)이라고 남의집 종살일 살렸더니/돈닷돈은 간곳이없고 골병(骨病)만 한가지 남았구나/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달을모아 달을모아 금지옥지(金枝玉枝)에 달을모아/불을개여 불을개여 심지없는 불을키여/천만호(千萬戶)에 끌어노니 일만가호(一萬家戶)를 다밝힌다/오호 병석 서리긴들 저불꽃이 누있으며/천세상 만구름아 너안꺼면 누가꺼나. H35 에헤 녹수청강(綠水淸江) 흐르난 물에 배차씩는(배추씩는) 저큰아가/그 피떡잎 다 제쳐놓고 속에속잎을 나를주소/당신이 날언제 봤다고 속에속잎을 달라하요/오늘보면 초면(初面)이요 내일보면은 구면(舊面)이라 좋구나. H37 나물묵고 물마시고 대장부(大丈夫) 풀(밭)을비고/눅었시니 잠이오나 앉었시니 잠이오나/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은 만족하요/얼씨구 좋다 못사리로다 요로콧 해다가는 내몬살래.//울도담도 없는집에 침자(針子)질

하는 저 큰아가/누(雛)의 간장(肝腸)을 녹힐라고 조래조로콤 잘났는냥/대장부 간장을 녹힐라꾸 유람하게 잘났어요/물래로까 잣어내까 들고지로까 돌리내까/뉘숫대(뉘숫대)과 뉘어내까 뉘어내면 내 사령(사랑)되고 못뉘어내면은 상사(相思)로다/얼씨구 좋데이 지화자 좋다 아니노지는 못사리로다.//돈 잘씨면 한량(閑良)이요 앵잘씨면 할년(何年)이요/예전한량 활 잘씨고 지금의 한량은 돈잘씨지/예전저너 배 잘짜고 지금의 처너는 수(繡) 잘놓네/얼씨구 절씨구 좋을시구 아니노지는 못하겠네.//태화연(太和淵)⁹⁾ 굽(구멍)속 너리고 깊어도/우룬님 속만치 너리고 깊을손나/우수경칩(雨水驚蟄)에 대동강(大同江) 풀리고/정든님 말쌈에 내가슴 풀린다/바람이 부느냐 정든님이 오시느냐/압록강(鴨綠江) 수영(匪楊)머들 척 늘어졌구나/사랑(사랑)이 중하냐 금전(金錢)이 중하냐/두가지 놓고서 판단으로 지우소/임시로 중한것은 사랑이 중하고/장래로 중한것은 금전이 중하지.//우리야 낭군님은 만주(滿洲) 땅보국대(報國隊)로 가شین데/오늘이나 오실랑가 니을(來日)이나 오실랑가/서월(서울)이라 녀은마당에 남의입은 다오시는데/우루(우리)입은 어덜가고 집 찾아올 줄을 모리는고/슬쿠락니른 부채(부처) 말문이 터지면 오실랑가/죽어서 고목(古木)남게 잎이 돌으면 오실랑가/우루입은 어드르가고 날찾어 올 줄을 모르는고/얼씨구 절씨구 못살리로다 요로콤되다가 내뭇살래.//바람불어 늙은나무 눈비가온다고 일어나요/병이들어 늙은입은 약쥌다고서 일어나요/남게불은 청개구리 바람불까방 수심이요/납딱납딱 송에(송어)새끼 가랑비 수근비오까방 수심대고/삼대독자 외동아들 병이나까방 수심이요/나무나무 곧은나무 타자지면은 숲이되고/공단비단(貢緞緋緞) 굵더라해도 얇어지면은 천걸레라/우리인생도 늙어지면 그와같이도 되는구나.//내딸죽고 내사위야 울고갈길을 왜왔더냐/이왕지사 왔거들랑 발채(말치)잠이나 자고가요/내가 요래도 대장분디 발채잠이 웬말이요/발채잠을 못자시면은 줄대잠이나 자고가요/님아임아 우루(우리)임아 줄대잠 자기를 왜덜더노/동지선달 설한풍(雪寒風)에 백설만 날려도. 임우생각/삼사월 진진(진진)혜에 나방만 날려도 임우생각/생각생각 임우생각 임생각이 간절하네/하늘겉이 높은사랑 태

9) 태화강(太和江)을 가리킴. 태화강은 울산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는 강임.

산같이도 깊은사랑/칠년대한(七年大旱) 가문날에 빗발같이도 좋은사랑/얼
 씨구나 절씨구나 못사리로다 요로콰되다가 내못살래.//남자마다 선배(선비)
 가 되면 농부될사람 누가있소/여자마다 부인이되면 화류계(花柳界) 종사
 (從事)로 누가하노/이사(醫師)마다 병(病)다곤치면 북망산천(北邙山川)이 왜
 생겼소/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살겠네.//찾어가자 찾어가자
 백두산(白頭山)으로 찾어가자/백두산을 찾아가면 울긋불긋 봉우리요/초롱
 초롱 그늘에다 하꼬비기가 다났았네/처녀수건 좋을시구 이실뎃힌 방우(바
 위)우에 태후꿈이나 몰었구나/얼씨구 좋다야 지화자 좋네이 아니노지는 못하
 겠네.//술이라고 먹거든 체(醉)지를 말고요/임이라고 쟁거든 이별을 말어라
 /술아니 목을라꼬 맹세를 하였더니/술보고 안주보니 맹색도 간곳없데이/한
 잔을 목어도 주막(酒幕)술이 좋고요/한숨을 잔다해도 첩(妾)의방이 좋더라
 /앞산에 묻은비는 갈방비(가랑비) 오고요/뒤편에 묻은비는 정든임 올때로구
 나/아실아실 칩거든 내품에 들고요/두통 비개(베개)가 높거든 내풀(쌀)을 비
 여소.//한강수 깊은물은 파도는 치는데/범겉은 시어머님은 메늘(며느리)만
 화달린다/화각단 보따리에 신가리뚜 쌓였어/산판수전토에 입찰으러 갑시다
 /천길만길을 떨어지고 살어도/우루(우리)님이 떨어지면 못사리로다/바람은
 불수록 물거품일고요/임은 불수록 깊은정만 드는구나/술이라고 먹거들랑
 체지를 마시고/임이라고 쟁하거든 이별을 말어라.

- 13 노자 젊어서놀이 아니노지는 못하리/화무는 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나니/인생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이요 아니노지는 못하리.//이팔
 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잊기마라/어제같이 청춘이더니 오늘날이 백발이라/
 얼씨구 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소지는 못
 하리라/백설같은 지나비는 부모님 옷(喪)을 입었는가/소복단장(素服淡粧) 곱
 기하고 장다리발을 넘나든다/얼씨구 좋아 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15
 허- 하늘이 내루는 신선을 타고/대국(大國)의 천자(天子)는 꾀꼬리 타고/우
 리나라 조상을 타고/대국에 전전한 말을 탄다/아호 아니야 밀구른데는/먹구
 보면은 훨훨 황새야 날아가자/얼씨구 절씨구 아니 아니노지는 못하리로다.
 16 예에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아니서지는 못하리라/일전에 모두가 꿈이로구
 나 모두가 잊어라 꿈이로다/옛날옛적 과거지사(過去之事)를 모두가 다잊어

라 꿈이로다/잊어야만이 옳을줄이야 이몸도 변연히 알진마는/어리석은 미련
 이남아 그래도 못잊어 한이로다/리리-리리 리리리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134 송죽(松竹)겉이 곧은절개(節介)를 매맞는다고 허락을하나/내몸이 아무
 리 기생(妓生)일망정 절기(節介)조참도 없실소냐/얼씨구얼씨구 기화자 좋네
 아니놀지는 못하리라.//난아난아 김영란아 바늘 가는데 실 안가나/앞문아키
 받은편지 뒷문아키 끼어놓고/한자보니 눈물ियो 두자보니 수심이라/가물감
 썰 목은님아 봄날같이도 다풀린다/얼씨구얼씨구 기화자 좋네 아니놀지는 못
 하리라.//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님 몽상(蒙喪)을 입었던가/소복단장(素服淡粧)
 을 곱게나하고 장다리발을 날어든다/얼씨구얼씨구 기화자 좋네 아니놀
 고서 못하리라.//남기 늙아서 고목이되면 오던새도나 아니오고/남기 늙아서
 고목이되면 오던 새도 아니오고/청춘이 늙아서 백발이되면 오던친구도 아니
 오고/꽃이 늙어서 낙화가 되면 오는 나비를 반대(薄待)한다/호박꽃도야 꽃이
 라고 오는나비를 반대하네/얼씨고 좋네 기화자 좋네 아니놀고서 못하리라.//
 하늘결은 서방님이 태산같으나 병이들어/흙자팔고나 월자를 팔아 인삼녹용
 약을지와/청로화리(靑銅火爐)에다 불걸어놓고 염치없으나 잠이들어/서방님
 숨가는줄 내몰랐네/얼리씨구 좋네 기화자 좋네 태평성대가 여개(여기)로다.//
 내사령(사령)을 남주지 말고 남의사령을 탐내지마라/아마도 귀한사령 알고속
 는거 여자로다/얼씨구 좋네 기화자 좋네 아니놀고서 못하리라/얼씨고얼씨고
 기화자 좋네 아니놀고서 못하리라.//배떠나는 인천항구(仁川港口)에 파도와
 물결이 남아있고/임떠나는 지방안에 한숨만 눈물이 남아있네/기차 떠나간
 역전(驛前)앞에는 꺼먼연개만 남아있고/임 떠나는 지방안에 담배꽂초만 남
 아있네/얼씨고얼씨고 기화자 좋네 아니놀고서 못하리라.

J36 저기가 저 구름에 비들었나 눈들었나/비도눈도 아니들고 소리맹창(謠
 唱) 다 들었나/얼씨구 좋다 절시구 아니놀고서 무엇하나.//백설같은 흰나
 부야 부모님 몽상(蒙喪)을 입었던가/소복단장(素服淡粧) 곱게하고 짱다리
 발으로 넘나든다.//흰내래다 먹칠하고 이빠진데 박씨박고/아이당에 놀러
 가니 아이들이 반대한다/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반대(薄待)하라/어제
 같이 소년이더니 백발되기가 잠시로다/얼씨구절씨구 좋을시고 아니놀고서
 무엇하나/아니 놀고서 무엇하나. J38 이산저산 도라지꽃 바람만 불어도

나실나실/우리오빠 네꾸단이(네티타이) 우리월매 눈에도 알랑알랑/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다 지화자 좋다. J39 기차전차(汽車電車) 떠나는데는 꺾
 등연개만 남아있고/배떠나는 부뚱가에 물고기만 남아있고/우로님은 어디
 로가고 오실줄을 모르시오.//이구십팔 열여덟에 나(나이)가어리서 못가겠
 네/여보장모 그말을마소/뱀새가 작아도 수리를 놓고 수리가 커도 뱀새 놓
 고/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아니 소지는 못하리/아니아니 노지는 못
 하리.//이청저청 마루청에 뱅뱅도는 뱅모(朋母)님요/빌립시더 빌립시더 약
 주한잔을 빌립시더/약주한잔에 청춘가(靑春歌)요 소주한잔에 노랫가락/얼
 씨구나 좋네 정말 좋네 아니아니 노지는 못하리.//새별같은 우로님아 세상
 에 없는 병이 나서/어디가서 물어보니 인삼녹용이 좋다하니/인삼녹용이 좋
 다해서 빈내(빈너)로 팔고 까락지로 팔아/인삼녹용 약을써서 약탕관(藥湯
 罐)을 엮어놓고/원수년의 잠이들어 인간이 숨간줄 내 몰랐네/얼씨구나 좋
 다 정말 좋다 아니아니 노지는 못하리.

K12 왜정(倭政)이라 제국시대(帝國時代) 북해도(北海島) 호접에 다나간다/이
 내 나는 무산(무슨) 피로써 함경도(咸鏡道) 조요가 웬말인고/다른입은 다
 오시는데 우룬님은 못오시노/은출폭탄(爆彈)을 맞었는강 이국땅 유람을
 가셨는가/다른님은 다오시는데 우룬님은 못오시나/팽풍(屏風)에 기린 장닭
 이 해치거들랑 오실랑가/살강밀에 흐른 물방울 대동강(大同江) 되거든 오
 실랑가/큰술에 얹힌 밥이야 짝나거등 오실랑가/사랑앞에 고목나무 움돋거
 들랑 오실랑가/개야 공공 짓지를마라 몸썰년의 강풍(強風)이 날속이네/얼
 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요로코롬 좋다가 발다파네.

L1 포름포름 봄배추는 찬이실(이슬) 오기만 바라한다/옥에간힌 춘향(春香)이
 는 이대룡(李道命) 오기만 바라한다/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아니 노지는
 못하리라.//빈대베룩(뱀룩) 끓는방에 구신(鬼神)겉으나 저임 보소/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아니 노지는 못하리라.//새끼 백(百)발은 썰데가 있네/
 사람의 백발(白髮)은 썰데 없다. L2 명사십리(明沙十里) 해당화(海棠花)야
 그꽃 진다고 설워마라/그꽃은 한문(한번)가면 명년사월(明年四月) 봄이되면
 /너는다시 오거니와 부유(浮游)겉은 우리의 인생/초로(草露)같이도 시러지
 니 언제한문 다시오리/삼신산(三神山)을 가자하니 약수(弱水)물이 삼천리

(三千里)요/저세상으로 가자하니 청춘이 구만리(九萬里)요/얼씨구나좋다
정말로좋네 아니아니 노지는 못사리라/태평성대(太平聖代)가 여계로다.//
아니노지는 못사리라 아니소지는 못하리라/백구(白鷗)야 꺽뚝 나지마라 너
를 쫓아서 내 안간다/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비고 눕었으니/대장부 살림살
이 요만하면은 자족하리/이것만하면 만족하리.//내사호(사위)야 내사호야
올고갈 길을 니 왜왔소/이왕지사 왔거들랑 발채(발치)잠이나 자고가소/내가
작아도 대장분데 발채잠이가 우안말고/얼씨구나좋다 정말로좋네 아니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L3 얼씨구나 절씨구나 놀아보자 아니노지는 못노리라/인
생 일장춘몽(一場春夢)이요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직일년아 살릴년아 대동
강(大同江)에 목벨년아/어린자숙(자식)은 배끓라놓고 병(病)든가장(家長) 밀
치놓고/동지선달 진진(진진)밤에 단뫼집이가 웬말이나/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소리통통 나는곳에 무정하다 저세월아/물결갈이도
흐려간다 칠보단장(七寶丹粧) 고운얼굴/절로절로 백발이요 담판도에 이 아
기야/너거아빠 찾지마라 너거아빠 찾는소래/입의생각이 절로난다/얼씨구나
저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L4 어딴침침 빈방안에 구신(鬼神)걸은 저임
보소/한때 뚝때 굶어나따나 같은 입을 만나주소.//직일년아 살릴년아 대동
강(大同江)에다 목벨년아/어린자숙은 배끓라놓고 병(病)든가장 잠덜이놓고.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를 마라/우리도 어제아래 소년이다 백
발되니 잠시로다. L7 아니 아니아니 노지를 못하리라/우중청청 빈방안에
구신걸은 저임봐라/백설걸은 요내몸에 야툼바툼 손들어온다/패는국화(菊
花) 지는목단(牧丹)아 연분(緣分)될 줄 누가알꼬/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간다간다 나는간다 입을따라 나는간다/니가가면 아주가나 아주간들 잇을소
냐/아니 노지를 못하리라.//입은가고 봄은온데 꽃만피어도 입의생각/구시
월 시단풍에 낙엽만 떨어져도 입의생각/동지선달 설한풍에 백설만 흘러도 입
의생각/누워생각 앉어생각 생각하니 이뿐이라/아니 놀고 무엇하리. L23
잊어라 꿈이로요 모두가 잊어라 꿈이요/잊어야만 꿈이로요 모두가 잊어라
꿈이로다/옛날옛적에 잘차린 살림살이는/모두가 잊어라 꿈이로다 잊어야만
꿈이던가/모두가 잊어라 꿈이로다/얼씨구절씨구 지화자좋고 아니쉬면은 졸
장부(拙丈夫)다/아니노면은 대장부요 아니노지는 못하리요.//백구여 날지

마라 너를쫓을 내아니요/첩산도 바로가면은 너를쫓아서 내아니요/나물먹고
 도 물마시고 팔을비고 누웠으니/장부의 놀음놀이가 요만하면요 만족한다/
 일촌간장(一寸肝腸) 맺힌 부모님 부모님밖에도 또있던가/얼씨구절씨구 기
 화자중구나 아니노지는 못하리라/태산같이 높은사람 하해(河海)와 같이도
 두터운사랑/부모님에 생각마라 생각말면은 누가해주나, //이 고장에도 춤을
 춘다면/해는 잠깐이나 춤잘치나/얼씨구절씨구 지화자중다 아니쉬지는 못하
 리라/녹음방초(綠陰芳草) 성하시(勝花時)는 해는너이도 쉬어가여/해다지고
 접근(近문)날에 기달을 하고도 거기가나/첩우집은 꽃밭이요 이내집은 연못
 인데/꽃과 나비는 봄에 한철에 연못에 금봉어는 사시절(四時節)/얼씨구절
 씨구 지화자중고 아니쉬지는 못하리라, //이장단(長短)에도 춤몬춘다면 어
 느장단이나 춤을 잘추나/이 고장에 노래못하면 어느 고을에다 춤을추나/얼
 씨구지화자 지화자중고 아니놀면은 줄장부다, //아 어화등등 내사랑아 늙어
 도사랑 젊어도사랑/이평생(平生)에 죽어지면 누가 찾아오리/얼씨구지화자
 지화자중다 아니놀고 무엇하요/대장부 놀음놀이가 요만하면은 만족하요/얼
 씨구절씨구 지화자중다. L38 아니 아니노지를 못하리로구나 아니노지를
 못하리라/인생 일장춘몽(一場春夢)인데 아니놀고 못하리라/저기가는 저구
 림에 눈들었나 비들었나/눈도비도 아니들고 소리맹창(名唱) 내들었네/얼씨
 구나중하요 지화자중네 아니노지를 못하리라/이팔청춘(二八靑春)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소/우리도 어제잠시 청춘이더니 오늘백발 돌아왔네/노자노
 자 젊어노자 늙어병들면 모노나니/인생 일장춘몽인데 아니놀고 무엇하리.
 L50 처녀야처녀 강원도처녀(江原道處女) 나물종사(從事)는 웬말인고/꽃바
 구니랑 옆에끼고 강원도 금강산(金剛山)을 올라간다/창파(滄波)에 돛단배
 는 동남풍(東南風) 불기만 기다리고/이구십팔 건방진쳐녀 연애편지 오덜만
 기다린다/삼월 사쿠라는 필동말동 우리야 연애는 걸동말동/얼씨구나중다
 지화자중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절씨구조타 절씨구나 아니노지는 못하
 리라/밀창영창(映窓) 반만열고 침자(針子)질하는 저큰아가/하던 침자질 거
 들치놓구 고개살کم 들고나뵈소/옥당목 주적삼 연분홍 통치마/산들이란 봄
 바람 삼각산(三角山) 자주맹기/범나비 앉아서 춤잘춘다/얼씨구중구나 절씨
 구중하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L58 그년이 아니노지는 못살레야 아니노지

를 못살거이다/누구누구 다부리니 회남(回南)¹⁰⁾에 최운규¹¹⁾문부릴까(문부를
 까)/조기(저기)가는 저구름에는 눈들었나 비들었나/눈도비도 아니들고 소리
 명천(茗唱) 들었구나/명천이라 하거들랑 회남(回南)땅에 오시면은 나를 만
 나고 떠나야지/얼릴씨구나절씨구 아니노지를 못사리라. L60 아니 아니노
 지를 못하리라/남기라도 고목이 되면은 오던새두 아니오고/물이라두 곤수
 가되니 놀던 고기두 아니놀고/꽃이라두 낙화가되니 오던나비도 아니오고/
 우리네인생 한번가면은 두번다시는 아니오고/뒷동산에 썩은 밤한톨 썩이나
 트면은 오시려나/평풍(屏風) 북판에 걸린 수탉이 꼬끼요 울면은 오시려나/
 가마술에 끓는 개가 꼬공꿍 짓으면은 오시려나/오마오마 온다던 님은 어이
 하여 못오시나/얼씨구종구나 지화자종네 요렇게 좋다가는 집안망하겠다.
 L72 에- 장구(장기)두는 노인 거동박라/늙은 장기는 짓대 부리고 젊은 장기
 는 소리친다요/긋거리 장단에 춤 나온다/얼씨구절씨구 지화자종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하늘이 아무리 높우다해도/우리 시어른카마는 덜 높으
 고/청청하늘에 구름이 우청청 부어도/우리 어머니 얼굴카마는 덜 부었네/
 청천 하늘에 잔별이 많애도/만동세 잔소리카마는 덜 많구나/한발에 목화를
 숨아 그목화가 곱아도 불피워도/만시숙카마는 덜 피구나/들발에 꼬치(고추)
 를 숨아 그꼬치가 맵다고해도/만시너부(시누이)카마는 덜 맵구나/이리저리
 고상(苦生)혜 눈물받아 한당시기/설움받아 두당시기 고상하여 시당시기/이
 시집살이를 당코나보니/이내몸 청춘이가 다늙었다/얼씨구리 절씨구리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M7 잊어라 잊어라 꿈이로다/옛날옛적 과거지사(過去之事)나 모두가 잊어라
 꿈이로다/잊어야만 옳은줄을 나도 엄연히 알았건만/모든 미련이 잠겼어라
 죽지못한게 여성이라/알고도 속고 모르게 속는 여성이라 속았구나/모든 미
 려에 속았구나.//호박꽃도 꽃이라고 오는나비를 반대(薄待)하고/남기라도
 낙화가되면 오던새도 아니온다/얼씨구나종네 지화자종네 아니놀지 못하리

10) 울산군 온산면(溫山面) 학남리(學南里)에 있는 자연부락 이름. 옛날 처용리(處容
 里) 앞바다에서 저녁 때 학(鶴)의 무리가 이 마을 상공을 날다가 남쪽을 돌아간다
 고 하여 회남(回南)이라 불렀다고 함.

11) 제보자 자신을 가리킴.

라.//얼씨구나 지화자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인생 일장춘몽인데 아니놀고 무엇하리/어허 우리가 한번 나짓다가 요다지 늙어지면/어는 친구가 나를 찾고 어는 형제 나를 찾나/요러고나 사시다가 아차한번 이내일신 병이 들면/북망산천(北邙山川)이 잘(잘)예로다/저승길이 멀다해다 방문밖이 저승이요/북망산천이 머다해도 저건너 저무덤이 북망인데/지거[자기것]두고 못묵으면 왕장군(王將軍)의 고자(庫子) 되고/지거없이 작(작)묵으면 남중호걸(男中豪傑)이 분명하다/옛친구 소냥(所用)없고 결의형제 쓸데없다/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를 못하리라.//요자석(座席)에 몬놀고 어디가서 놀것이고/노자노자 더 젊어 노자 늙기전에 많이놀자. M11 얼씨구얼씨구 좋을씨구 아니놀지를 못하리라/입이 좋다 하다지만 꽃을따러 입이가야/입이가면서 꽃이가나 꽃과 나비는 한가진데/니가말고 나도 말고 요리름 좋다가 논팔아먹겠다.//해다지고 저문날에 꽃갓을 씨고야 어들가요/꽃갓을 씨고야 어들가요/첩의집을 가실라하거들 나죽는풀이나 보고가요/첩의 집은 꽃밭인데 나의 집은 연못이라/연못의 금붕어(金붕어)는 사시장철/꽃과 나비는 봄 한철뿐이요/얼씨구씨구 저절씨구 요리름 좋다가 논팔아먹겠다. M55 올명사창 백합모래 왕래하는 범나비아/왕래길이야 좋다마는 가지가질랑 앓지마라/와룡와룡 왕거무(왕거미)가 너 잡을라꼬서 줄을친다.//아니 아니노지를 못하리라/진국명산(鎭國名山) 만장판(萬丈峯)에 아니노면은 무엇하리/지거두고 못묵는거 왕장군(王將軍)에도 고자(庫子)란다/지거없이 잘묵는거 영남(嶺南)에해도만 호걸이다.

N15 머리길고 실한처녀 올뽕나게 앉아우네/올뽕줄뽕 내따주마 백년살이를 내坎살자/얼씨구나 절씨구나 좋네 아니나놀진 못하리라.//아니 아니나놀진 못하리라/나부(나비)나부 범나부야 담장너머를 넘지마라/심천곳은 왕거무가 죽을 치어서 기다린다/얼씨구나 절씨구나 좋다 아니나놀진 못하리라. N23 낙여방초(隸陰芳草) 성화시(勝花時)는 해는어이 수해(쉬이)가노/나물묵고 물마시고 팔을비고 누웠으니/대장부 살림살이는 요만하면 넉넉하리/너와내와 만날적에는 열두포장 채알(謎日)밑에/꽃팽풍(屏風) 둘러치고 동무나무 마주꽃고/밤대추 건들적에는 양초불을 밝히놓고/쪽두래(쪽두리)는 낭자

가 씨고 사모관자(紗帽冠帶)는 도련님 씨고/백년을 사자고 언약을 해여/얼 시구 좋다 저리시구나 거덜렁거리고 저털시구/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N24 직일년아 살릴년아 대동강변(大同江邊)에 목빌년아/어런자속 잠드리 놓고 담보따리랑 말에다 신고/이별이가 웬말이나/일부종사(一夫從事)도 왜 못하고서 이부종사(二夫從事)가 웬말이나/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동산(東山)에 달이 밝어 오동(梧桐)에도 학이 앉아/학이 죽나 비오는데 사꾸라꽃이가 만발했네/사꾸라잎이 단오 좋하니 땀 땀 땀 땀이 떠두룬다/공산삼십(空山三十) 비삼십은 값이가 많애도 좋구만은/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아니 노지는 못하리라/이척저척 청마루 끝에 땀땀은 빙모(聘母)님요/빌립스다 빌립스다 막걸리 한잔만 빌립스다/첫째잔은 수심가(愁心歌)를 뒤에잔은 양산도라/한잔을 묵고 두석잔을 묵고나니/빙모님 술잔에 춤 나온다/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아니 아니노지는 못하리라/백구야 훨훨 나지를마라 너를 잡으러 여기왔나/또산이 바로전 그땀 너를 쫓아서 여기왔네/나물묵고 물을마시고 팔을비고서 누웠으니/대장부 살림살이가 요만하면은 만족하다/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N30 아니 아니노지는 아닐래라 아니노지는 아닐래라/노자노자 젊어노자 늙어지면 못는다/우리 요래 잘노다가 아차한번 죽어지면/갓나무 열두대곡 굵은 소나무 등을 맞아/죽지장판 질끈묶어 초지공산(草地空山) 터를 닦아/청송(靑山)은 울을삼고 녹수(綠水)가제[가에] 짐을지어/두견(杜鵑)소리 무성할 때 어느친구 날 찾으리오/얼씨구 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N32 얼시구 절시구 아니놓고 무엇하리/이세상에 나온사람 누(誰)터으로 나왔던고/석가여래(釋迦如來) 공덕으로 부처님전 빼를타고/엄마전에 살을 빌려서 이 내 일신이 탄생하니/한두살에 철을 몰라서 부모은덕을 알수있나/이삼십이 당하여도 부모은공을 못되가고/무정한 이세월이 동지선달이 다치왔다/얼시구 절시구나 아깝다 우리세상. N33 백대영웅(百代英雄) 호걸(豪傑)들이 초한승부(楚漢勝負)를 들어보소/절인지용(絕人之勇) 소용없고 순민심(順民心)이 으뜸일다/한패공(漢滄公) 백만대병(百萬大兵) 구리산(九里山)에 십면매복(十面埋伏)/대진(大陣)을 둘러치고 초패왕(楚霸王)을 잡으랴

때/수(數) 잘놓는 장자방(張子房)은 계명산(鷄鳴山) 추야월(秋夜月)에/옥
통수(玉洞簫)를 슬피불어 삼천제자(三千弟子)를 흘렸을때/노래를 하실적에
구추삼경(九秋三更) 깊은밤에/하날은 높고 달이 밝아 청천(靑天)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너의 대왕(大王)을 델고가며 전장하면은 다죽는다/너저 고
향 돌아가서 부모처자(父母妻子) 공경하고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다짐해
라/얼씨구 좋다 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청춘가

분포지역 : ACDHJMN

- A29 삼산동 상중리 노재식(남 50).
- C4 천곡리 박하수(남 61). C24 천곡리 이화 김계남(여 65).
- D6 척과리 이필란(42). D19 사연리 곡연 오병천(남 76). D30 천상리 천상
박성용(남 73).
- H22 직동리 신흥 이상덕(남 55).
- J8 은현리 덕현 김인달(남 72).
- M55 망양리 터실 김정득(여 60).
- N7 서생리 성내 박상금(여 67). 이정순(여 50). 이동선(여 61) 공동구연.
- N13 서생리 성내 조말분(여 57). N15 서생리 성내 이정순(여 50).
- N19 서생리 성내 임정순(여 61).

백구(白鷗)야 경동 날지마라 너를 쫓을 내아니다
 청산에 달이나 솟아 달귀따러 내왔노라
 추야월색(秋夜月色) 달밝은 밤에 벗없는 이내몸은
 어덯침침 빈 방안에 외로이두나 홀로누워
 밤은 점점 야심(夜深)토록 좌불안석(坐不安席)에 잠못자고
 오늘도 나 뜬눈으로야 새벽(새벽)맞이를 하였노라

C4 삼산(三山)은 반락(半落)에 모란봉(牡丹峰) 되고야/이수중분(二水中分)에 흥- 능라도(綾羅島)로구나/혜 사람 알구야 인정 모르는 인간아/니는 어는 때 죽어도 돈배락에나 죽어라/세월니월야 오고가지 말어라/아깍은 내청춘 다늬어 빠진다. C24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 넉넉하리.

D6 장미꽃이 곱더라해도 꺾어보니까 까실레라/사랑이 좋다고와요 따라가니까 눈물일세. D19 노자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노리로다/화무는 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나니/인생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인데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다/화점점 봄나비 쌍쌍 양류청산에 꺾꼬리도 쌍쌍/날짐생 길버리지도 짝을 지어서 오고가건만/이년 전생(前生) 무삼죄로 홀로 이지 경이 웬말이나/얼씨구얼씨구 기와자자자 좋네 어찌좋은지 모르겠네. D30 정든님이 오실라면 버듯하기만 오시지/꿈속에만 오라고려 구곡간장(九曲肝腸)만 다독이나/에헤이야 허어이예 어여라 난다 디여라/히송세월을 말어라.//시내가에 빨래소리 모두락툭탁 나는데/아롱아롱 버들잎은 정든님 얼굴만 가리더나.

H22 에헤에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은데/이상디[이상덕]¹²⁾ 가슴속에 잔수심 많구나/노자 놀아라 젊어서 놀어라/내 늙고 병들면 에헤 못노리로다.

J8 녹음초송(綠陰芳草)는 연연(年年)이 오건마는/한번간 내청춘은 언제나 다시오나/새끼 백(百)발은 쓸곳이나 있건마는/사람의 백발(白髮)은 쓸곳이 없더라/세월이 가기는 바람길 걸고요/사람이 늙기는 흐르는 물갈네/청춘아 너가 자랑 말어라/어두운 세월에 백발이 오노라.

M55 울도담도 없는집에 명지(明紉)베짜는 저 큰아가/니 누(누)간장을 녹일라꼬 고다지 곱기도나 생겼더나/뉘어내자 뉘어마내자 뉘스대(뉘싯대)로만 뉘어내자/찾어내자 찾아내자 물레로까만 찾아내자/잘 뉘으면 임이라요 못뉘으면 상사(相思)로다.//오늘아침 오동(梧桐)남개 깎치[까치]가 한쌍이 깎싯기에/행여나 임이 올까 행여나야 소식올까/기다리다 못하 잠이 잠깐/모진놈의 새복(새벽)바람 풍지(風紙)가 떨떠리 떠는소리/깜짝 놀라 창문으로 여니 임은 점점 간곳은 없고/맹월(明月)이 하고만 날 새왔네.//강에있는

12) 제보자 이상덕 자신을 가리킴.

는 물고기야 어부 떴다고 수심마라/수중천리(水中千里) 높은 바다 숨어서 살면 그만이지/야산에 쫓(甁)개끼야 매 떴다고서 수심마라/이산저산이 너 집이니 숨어살면은 그만이라/넘잃은 이내 몸은 하소연할 곳이 전히(전혀) 없네.

N7 창밖에 오는비에 산란도 하더니/비끝에 돌난달 유정도 하여라.//환한 저 달이 창밖에 비치니/산란한 내마음 에- 더욱도 산란해.//갈밭에 달뎀 저 기러기만 날어도/처녀가슴 달뎀진 매맛을 장복이다.//술과 담배는 나 심정 알건마는/한품에 든 님은 나 심중 모르네. N13 물 한 도오(동이) 여다(이다)놓고 물사심 보니겨/촌살림 살기는 영 글렀구나/술이라 먹거덩 술치정(술주정)을 달고요/입이라고 정커덩 입 유별(이별) 말어라.//싫거덩 두어라 너 하나뿐이나/산넙고 물넙으면 또 사령(사랑) 있단다/우연히 싫더나 누가 말 들어서/날만 본다면 생짜증 내느나. N15 에- 우리야 연애 어- 술방구(술방울) 연앤데/바람만 알랑해도 뚝 떨어지누나/임 실러갈 때는 반들(뚝)을 달고요/입 신고을 때는 온돌을 다노라.//아시렁(으스름) 달밤에 빈양산 들고요/금강산(金剛山) 숲속에 임 찾아 가노라/일본(日本) 동경(東京)이 얼마나 좋아서/꽃같은 입을 두고 연락을 타누나/우수경첩(雨水驚蟄)에 대동강(大同江) 풀리고/우리넙(우리넙) 말씀에 내마음 풀린다.//아- 울넙에 담넙에 임숨겨 놓고요/호박넙이 나틀나틀 날 속이누나. N19 간다 못간다 울매나(얼마나) 울었노/정기정(停車場) 마당이 좋다 한강수 되노라/갈때 가더라도 간다 말 말어라/산 넘어도 산 있고 좋다 물 넘에도 물 있네.

태평가

분포지역 : D

D30 천상리 천상 박성용(남 73).

니나노 널리리야 널리리야 일싸좋아 일씨구나좋다
 범나비는 이리저리 펼 펼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개나리 진달래 만발해도 매란국죽(梅蘭菊竹)만 못하더니
 사군자(四君子) 절개를 몰라주니 이 모든것을 난또있느냐
 니나노 널리리야 널리리야 니나노 일싸좋아 일씨구나좋다
 범나비는 이리저리 펼 펼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D30 (표본 외에) 학(鶴)도뜨고 봉(鳳)도뻗네 강산은 두루미 높이떠서/먼훗날
 에 허싹피고 우줄하니 춤을춘다/니나노 널리리야 널리리야 니나노 일싸좋
 아 일씨구나좋다/범나비는 이리저리 펼 펼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홍타령

분포지역 : JM

J39 대북리 대북 김원출(여 64). J44 대북리 오복 김복순(여 50).
 M33 운화리 하대 박선애(여 38).

저 네거리 술 떼우는 저 영감아
 정 떨어진 데는 떼울 수 없느냐
 술 떨어진 데는 무쇠로 가 떼우고
 정 떨어진 데는 인정으로 떼운다
 싫거덩 두어라 싫거덩 두어라
 산님에 산이 있고 물님에도 물이 있다
 시어마씨 잔소리는 술비상 같고요
 당신네 말 한마디 내 가삼[가슴] 풀린다

J44 뒷동산 칠성단(七星壇)을 모아나 놓고서/본남편 죽으라고 고랴 기도를
 올렸네/죽으라는 본 남편은 아니나 죽고요/죽지마라는 군서방이 도랴 죽

었다 부구장(訃告狀) 왔노라/흰 땡기를 들일라니 남이 먼저 알고요/남이 모르는 삼베속곳이나 고라 입어나 볼까요.

M33 일본동경(日本東京)이 얼마나 좋아서/꽃같은 나를 두고 에루화 연락선(連絡船) 타느냐.//금전이 있으면 삼훈변 놓지요/남의 자식 다리다가 좋다 왜 고생 시기노.//사흘 못살고 갔다면 내가 가지/영결난 술 안묵고 좋다 나 못사리다.